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학입시정보

가솔엔 비견을
행동엔 돌격을
새삼엔 사랑을

(063)844-3813(교무실)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제2017-8월호

2017년 8월 19일(금)

솔밭안 기자단

조 단(10) 김서윤(7) 한정욱(10) 배성훈(8) 김현종(7) 정민호(10) 권준환(3) 김민규(3) 문청준(2) 정상용(6) 김재영(9) 최준혁(10)
김민준(5) 김 현(9) 이정인(9) 김형민(2) 박준휘(7) 양 건(7) 김규원(3) 임규진(1) 문서빈(6) 신동호(10) 배운혁(3) 남현욱(8) 송건우(6)

'성큼' 다가온 수능 D-100, 수험생을 위한 '십계명'!

4능 D-100 학습 전략, 한 문제 차이가 등급 결정한다!

C.O.N.T.E.N.T.S

입시 정보 지면 안내

■ '성큼' 다가온 수능 D-100,
수험생을 위한 십계명/ 1-3면

■ D-100, 수능과 바이오리듬을
맞춘 시간표를! / 3-4면

■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
야 할 입시정보 / 5-6면

■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
별로 확인하기①~⑧/ 6-23면

■ 상위권만 학생부 기록해주는
학교 / 23-25면

■ '졸속이 만든 딜레마' 수능 점
대평가 / 25-28면



▲ 부산대학교에서 부산·경남·울산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공동 입시설명회 [사진 제공=부산교육청]

오는 8월 8일이면 '수능 D-100'이다. 수능까지 정확히 100일이 주어진다. 본격적인 수능시계가 카운트 되기 전, 체계적인 학습전략을 준비하며 여름방학과 자소서, 면접 등 수시 준비로 흐트러졌던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능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을 비롯해 일부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시험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부터 체계적인 학습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최저기준의 문턱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간동안 극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수능에서 한 두 문제라도 더 맞히느냐, 마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입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시간 100일! 앞으로 남은 기간, 자신의 학습 수준에 따라 기본 개념 다지기부터 고난도 문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 본 자료는 언론 및 기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입시정보란에 E-mail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자료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수험생들을 위한 D-100 십계명

1. 자신의 목표 대학 및 전형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우자.
2. 취약 부분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는 학습하자.
3. EBS 교재와 강의를 꼼꼼하게 학습하라.
4. 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자.
5. 중상위권은 고난도, 신유형 중심의 문제풀이 학습을 하자.
6. 중하위권은 교과서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7. 수시 준비 기간 동안 수능 학습 패턴을 유지하자.
8. 잠은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9. 인터넷, 스마트폰 등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을 차단하라.
10. 즐거운 경험과 미래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4능 D-100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자세

학원, 인터넷 강의에 의존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정리하라

수능 마무리 학습에 대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넘쳐난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이 아닌 학원이나 인강에 의존하는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들어도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력은 자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취약한 과목과 단원을 알아보자. 취약 부분의 문제를 풀고 나서는 문제가 틀린 원인을 분석하고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스스로 취약 부분을 파악해 보완하는 학습을 통해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나가도록 하자.

기출 문항을 통해 매년 출제되는 유형은 절대로 틀리지 말자

수능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시중에 나온 새로운 교재를 찾아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항을 집중 학습해야 하는 일부 상위권 수험생은 예외다.

대체로 수능은 매년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는 기출 문항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을 뽑아 철저히 연습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출 문항 중심의 기본 학습을 통해 기본 점수를 확보하자.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맞춤 학습 전략을 짜라

수능 학습 목표도 지원 전략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망 대학을 정하고,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망 대학을 선정할 때는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6월 모의평가에도 N수생이 응시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N수생과 반수생의 응시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6월 모평보다 수능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수험생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성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할 수 있더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성적이 불안정한 영역을 집중 학습하고 끝까지 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자.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자.

불안한 시기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과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시기이다. 지나친 욕심으로 무작정 하루의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인 공부법이 아니다. 이보다는 평소 공부하는 패턴을 유지하되, 집중력을 키워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잠을 줄여가며 공부 시간을 늘리게 되면 몸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다. 잠은 6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감과 무리한 욕심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거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대학 입학 후의 모습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적절한 휴식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자.

4능 D-100 영역별 학습전략

■ 국어 영역

2017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영역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유형에 집중하느라 기본 유형이나 개념, 이론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취약한 영역에 집중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학습의 편식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수록 균형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 평소 자신 있고, 정답률이 높은 영역이나 유형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영역과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EBS교재를 충분히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그 중에서 문학 작품의 학습은 출제 가능 작품을 중심으로 실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하자.

더불어 독서 영역의 긴 제시문과 6문항 세트 유형에 대한 적응 노력도 필요하다. 1800자 이상의 제시문을 읽으면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의 요구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 학습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는 발판으로 삼자.

과학과 기술, 사회 영역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중위권의 경우, 비문학의 철학이나 경제, 과학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시문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독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이다.

철학자의 관점에 대한 파악과 비교, 경제나 과학적 원리나 법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 등의 문제가 취약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제시문에서 언급한 관점이나 개념, 이론의 핵심 원리와 논리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답을 찾는 연습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수학 영역

상위권 학생들은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문항 중 고난도 문항에서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고난도 문항의 대부분은 미지수의 개수가 많거나 조건이 많아 문제를 분석하는데 긴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고난도 문항에서 사용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이 많은 고난도 문항을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연계교재가 아닌 EBS 교재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유형, 고난도 문항에 도전해 보면서 미지수의 개수가 많거나 조건이 많아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 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출제되는 기본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연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BS 연계교재를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에 있는 유형들은 시중 교재에서 찾아 연습해 유형이 정확하게 정리돼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위권 학생은 지금부터라도 교과서를 정리하고, 올해 출제됐던 모의평가 기본문제, 연계교재 기본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

■ 영어 영역

절대평가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꿈을 부리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공부 방법이지만, 90점만 넘으면 100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평가이니,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다른 영역은 나보다 잘 본 수험생이 많으면 내가 잘 보았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내려갈 수 있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이니만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점수를 올리는 공부 방법을 택해야 한다. 즉,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면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고난도 문제를 얼마나 맞는지 자신의 등급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칸 추론 문제와 쓰기 문제(특히, 문장의 위치 파악 문제)는 상당한 수준의 논리력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EBS 교재의 다양한 지문을 공부하면서 해석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실전 연습을 해야 한다. 평소에는 EBS방송교재나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1주에 한번 정도는 실전 연습을 스스로 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기출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실전 연습은 비단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역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자.

【D-100, 수능과 바이오리듬을 맞춘 시간표를!】

나의 대학은 성적이 아닌, 내가 선택한다

D-100. 생애 첫 경험, 수능이 다가온다. 이제 한 계절만 지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저마다

방향을 기회로 삼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많은 고민을 갖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인 수능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최고의 결과를 만들지 의문이다.

그래서 여기, 수능과 바이오리듬을 맞춘 방학 시간표를 제안한다.

▲ [am 06:00 ~ am 09:00] 공부 시작 3시간 전 기상하기!

- 늦어도 7시 30분에 기상

- 기상한 뒤,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으로 뇌 깨우기

수능 1교시, 국어. 국어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한다. 하지만 대개 8시 전후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늦어도 7시 30분에 기상하길 권한다.

기상한 뒤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지 3시간은 지나야 수면 관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면 신체의 각 부위와 연결된 뇌를 자극하고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때 적절한 체온 상승은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am 09:00 ~ pm 12:00] 기출문제로 취약과목 보완하기!

- 하루 중 집중력 최고조

- 취약한 영역 공략하기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다. 뇌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난 후 잠에서도 완전히 깨어나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므로, 평소 취약한 영역이나 어려웠던 단원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족한 영역을 학습할 때에는 첫 단원부터 모두 공부하려 하기보다 본인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해 개념부터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문제를 풀 때도 심화 문제보다는 해당 개념과 연관된 문제부터 차근차근 푸는 것이 좋다.

특히 기출문제로 핵심을 파악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각 영역의 기본 핵심 개념들은 문제 유형만 변형될 뿐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학습은 수능 마무리 과정의 기본이다. 따라서, 역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6월 및 9월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 문제는 11월 대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해당한다. 만약 아직 모평을 제대로 오답하지 않았다면 틀린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맞았던 문제라도 문항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기본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 [pm 12:00 ~ pm 06:00] 단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집중력 높이기!

-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대

- 잘하는 과목 위주로 학습

- 피곤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한 방법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그렇기에 어려운 영역이나 단원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꼼꼼히 봐야 하는 부분도 대충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위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집중해보도록 하자. 또한 공부 효율이 낮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에 학습한 내용은 복습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분 내외의 낮잠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주므로 점심을 먹고 난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잠깐' 낮잠을 자는 것도 좋다. 단 낮잠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깨알 팁)수능 시간과 내 시간 맞추기

일주일 중 하루, 이들은 수능 시간에 맞춰 행동하자.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고, 제때 풀지 못한 문제는 다른 문제를 모두 풀 다음 다시 풀어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 [pm 06:00 ~ pm 10:00] 주요 단원 및 영역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 집중력 높은 시간대
- 냉정한 자세로 본인의 실력 점검

아침잠에서 깨어난 지 12시간 정도 지나면 몸의 피로도도 증가하지만 집중력은 점심 이후보다 좋아진다. 학교 수업시간보다 방과 후 학원 수업시간에 정신이 더 맑다고 느끼는 경우도 집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중요한 단원이나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본인의 취약 영역은 물론, 평소 자신 있던 영역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맞힌 문제인지, 보기 중 헷갈린 문제는 없었는지,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인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등 정확히 구분하고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만약 문제를 맞았더라도 헷갈린 보기가 있다면 두 번 다시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정리해야 한다. 수능은, 이란성 쌍둥이처럼 반복출제 되기 때문이다.

▲ [pm 10:00 ~ am 12:00] 암기량이 많은 단원 공부하기!

-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골든타임
- 암기과목 위주로 공부

잠들기 전 2시간, 공부한 내용이 자는 동안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아주 좋은 시간대이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영어 단어나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은 탐구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부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될 즈음 잠자리에 들면 피로감이 높아져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am 12:00 ~ am 06:00] 숙면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대뇌에 새기기!

- 잠이 안오더라도 불을 끄고 자도록 노력해야

하루 동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잠을 자지 않거나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없다. 깨어 있는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해마'라는 단기 기억 저장소에 보관됐다가 수면 시간 중 대뇌 각 부분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파악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잠자기 전 핸드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뿐이니,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멀리하자.

하루 계획표, 어떻게 짜야 할까?

▲ 영역별 학습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라

취약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영역을 소홀히 여기면 자칫 해당 영역이 자신 없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영역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어 실전 감각을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 집중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라

지금부터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집중력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한 영역을 장시간 공부하지 말라. 한 영역을 장시간 공부할 경우 점점 흥미를 잃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 영역을 10시간 이상 공부하기보다 3시간은 영어, 2시간은 국어, 3시간은 수학과 같이 시간을 나눠, 매일 여러 영역을 번갈아 학습하는 것이 공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수능시험에 최적화된 집중력을 길러라

수능시험은 국어 영역 80분, 수학 영역 100분 등으로 꽤 오랜 시간 진행된다.

그렇기에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학습과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해라. 특히 휴식시간은 수능 때의 휴식시간과 같은 30분으로 잡는다.

불안하지 않은 수험생이 어디 있으랴. 불안한 와중에도 남은 기간, 누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자신감은 하루하루 계획한 만큼의 목표를 이뤄 마음속에 성취감을 쌓을 때 생긴다. 일과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나의 대학은 성적이 아닌, 내가 선택한다.' 와 같이 말이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입시정보】



▲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이 학생명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세대]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쏟아지는 입시 정보를 접하다보면 이제는 별 새로운 것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시는 각 대학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상이하고, 대학내에서도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자신의 성적보다 더 상위 학과, 대학을 희망하는 내신 2등급 후반 이하의 학생들은 '정보력'이 수시의 승리를 거머쥔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아는 정보도 되짚어보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입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래는 9월에 시작되는 원서접수에서 '고3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대입 지원 상식'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알고 있던 정보는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모르던 정보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자.

Q1 : 수시, 정시는 몇 번 지원할 수 있나요?

A: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에서 3개나 2개 또는 아예 지원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단, 특수대학(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위 지원 기회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Q2 : 같은 대학에는 두 번 지원 못하죠?

A: 아니다. 모집시기가 다르다면 같은 대학이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수시와 정시).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내의 동일 전형에만 두 번 지원하지 못할 뿐 전형이 다를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교과전형과 논술전형 동시지원 등) 단, 수시에서 하나 이상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대학도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Q3 : 모집요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A: 각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모집요강은 30페이지가 넘는 많은 내용들로 구

성돼 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 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집인원총괄표이다.

해당 모집시기에서 모집하는 전형들이 모두 나와 있고, 모집하는 모집단위(학부 또는 학과)별 선발하는 인원을 안내해 주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지원할 학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형별 자료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전형 방법을 확인한다.

여기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전형일정이다. 원서접수 일정은 기본이고, 서류제출마감일정, 대학별고사가 있다면 예비소집은 있는지 고사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필히 확인한다. 대학별고사 일정의 경우 타 대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면서 지원할 대학간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Q4 : 수시에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수시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해당 학년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수시 모집 시기에 특수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정시 모집 지원은 할 수 없다.

Q5 : 합격자 발표 먼저 하는 대학에 등록하면 이후 다른 대학 합격해도 어쩔 수 없나요?

A: 아니요. 동일 모집(수시/정시)에서는 일찍 합격자 발표를 하여 등록했다라도 이후 타 대학 합격 시 등록 취소한 후 다른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Q6 : 미등록충원이 뭔가요?

A: 수시6번, 정시3번의 지원 기회 중 수험생은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다. 즉,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시 가고자 하는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 최초합격자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 이 빈자리에 예비순위를 두어 결원 자리를 채우는 것을 미등록충원이라 한다. 수시, 정시에서 모두 통용되는 용어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에서 미등록충원 대상이 된 경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수시 합격자로 판명되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Q7 : 가군, 나군, 다군이 무엇인가요?

A: 정시 모집에서 쓰이는 용어로 전형을 갖는 시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부르며, 각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의 한 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여러 군(시기)에서 모집을 갖는 대학도 있고, 특정 모집 군에서만 모집을 갖는 대학도 있어 정시 지원에 앞서 대학별 모집군을 확인해야 한다.

Q8 : 모의평가 성적표,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성적표에는 학생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보통 상위권 대학들이 평가 시 활용하는 점수는 표준점수이지만, 이 점수는 시험마다 응시자들의 점수분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점수다.

전체 응시생 중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백분위와 등급 점수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등급점수는 9개 구간으로 밖에 구분되지 않아, 좀 더 자세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백분위점수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지난 모의평가와 영역별로 비교해 백분위점수 등락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9 : 수시 전형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살펴봐야 하죠?

A: 대학별로 전형의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의 차이로 상당히 많은 전형들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전형들을 유형별로 그룹 지어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특기자(어학, 과학, 예체능)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보자면 특별한 특기나 성향이 없다면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일반전형을 찾으면 되고, 특기나 성향이 있다면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Q10 : 고3 내신성적이 중요하나요?

A: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정시 모집에서는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는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정시에서도 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 반영이 높은 경우가 있다. 특히 학생부 반영 시 학년별 반영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3학년 성적을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하므로 고3 내신도 중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입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혼동할 경우 당해 입시를 망칠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부모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로만 대략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본 사항부터 숙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부모들도 입시 지식을 쌓아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①]

‘수시모집 역대 최고비중, 논술전형 비중 감소’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대입을 둘러싼 굵직한 변화들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시모집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지원해야 할 만큼 높은 비중의 수시모집, 어떻게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되나요? 논술전형의 비중이 줄었는데, 논술전형에 꼭 지원해야 할까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제 약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을 끝냈을 수험생들은 기말고사를 치려야 합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자기소개서 작성, 논술 준비, 면접 대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적성고사전형 등 수많은 수시모집전형 중 나에게 딱 맞는, 그리고 내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형’을 찾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뮬동아는 이런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18 수시 마무리 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해당 시리즈에선 가상의 수험생 케이스를 각각 설정하고, 수험생이 갖고 있을 만한 고민들을 들여다 본 뒤, 이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수시모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뮬동아의 <2018 수시 마무리 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시리즈를 통해 남다른 수시 전략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수험생의 질문]

Q. 부모님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대입 판세가 요동친다’는 뉴스를 보신 이후 요즘 부쩍 “공부는 잘 되어 가느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수시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수험생입니다. 물론 제가 지원을 고려하는 수시전형 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2개 영역에서 2등급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설명 드렸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으시네요. 정말 부모님 걱정처럼 저 같은 ‘수시 올인형’에게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영향을 미치나요?

[입시대장의 답변]

A.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7%입니다. 수시모집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대부분 수험생들이 학생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수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수시 전형이라면, 물론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수시전형의 경우 수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사 수능 전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지요. 하지만 학생처럼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수시전형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난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라도 긴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 늘어나는 영어 1등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수시모집 사정의 최종 단계에서 경쟁할 경쟁자들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는데, 왜 수시모집 최종 단계에서 경쟁할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부터 살펴보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는 응시자의 4%로 1등급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90점 이상’만 얻으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1등급 인원이 늘어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다음 <표1>을 볼까요?

(표1) 최근 5개년 수능 영어 성적 분석

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만점자 비율	0.66%	A형:1.13% B형:0.39%	3.37%	0.48%	0.72%
1등급컷 (원점수 기준)	93점	A형:95점 B형:93점	98점	94점	94점
▼ If,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였다면 1등급 인원은(추정)? ▼					
90점 이상	인원 38,468명	57,851명*	90,664명	51,249명	42,867명
	비율 6.3%	9.7%	15.6%	9.0%	7.8%

-[*]2014학년도 수능 90점 이상 인원 및 비율은 A/B형 합산

-90점 이상 인원 및 비율은 추정치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수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과거 수능에 준해 '영어 90점 이상 1등급'이 주는 무게감을 한 번 느껴봅시다. 이 표는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최근 5년간 수능 영어 성적을 분석해 각각의 수능이 절대평가였을 경우 1등급(90점 이상)의 인원과 비율을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 참고로 상대평가였던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영어 1등급 인원은 전체 응시자 54만7992명의 약 4%인 2만4244명입니다.

비교적 최근 치러진 수능 가운데 만점자가 '역대급'으로 많았던 2015학년도 수능의 경우를 볼까요? 2015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은 무려 98점이었습니다. 시험이 매우 쉽게 출제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등급 인원을 상위 4%로 제한한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만점 혹은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에게만 1등급을 주는 것으로 '물수능' 여파를 다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당시 수능이 절대평가였다면요? 시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90점 이상인 학생들은 모두 1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성적 자료를 토대로 영어 90점 이상 학생수를 추정해보면 무려 9만664명이나 됩니다. 만약 절대평가라면 이들 모두가 1등급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수능이 어려웠던 해도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펄펄 끓는 '불수능'이어서 선배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2017학년도 수능 기억나나요? 만약 2017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였다면, 전체 응시자의 7.8%인 4만2867명이 1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학년도 수능과 만점자 비율이 비슷한 2016학년도, 2013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치환해 봐도 응시자 대비 1등급을 인원 비율은 상대평가에서의 1등급 비율인 4%를 훌쩍 넘깁니다.

과거 수능에 준해 볼 때,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어려워지지 않는 한 1등급 인원은 늘어날 겁니다.

○ 수시는 여전히 상대평가, 경쟁자가 늘어난다

그럼 이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수시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아까 수시 지원자 중 무난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라도 긴장해야 한다고 했지요? 영어 1등급 인원이 과거 어려웠던 수능에 준해 4만명 가량만 되어도 수시 지원자들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래 <표2>를 보세요.

(표2) 2018학년도 지역별 4년제 대학 선발 인원

지역	모집시기		모집인원 합계	누적 인원
	수시 모집인원	정시 모집인원		
서울	47,643	22,409	70,052	70,052
수도권	32,793	14,780	47,573	117,625
지방	153,912	51,598	205,510	323,135
합계	234,348	88,787	323,135	-

<표2>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의 정원 내 모집인원(2018학년도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중에서 전국 많은 수험생들의 목표, 흔히 'In 서울'이라고 이름 붙인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모집인원을 모두 합하면 4만7643명입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이 2017학년도 수능 수준으로 출제돼 약 4만명이 영어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능 영어 1등급 인원이나 서울권 대학이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2018학년도 수능이 2015학년도 수준으로 쉽게 출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권 대학이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남들이 1등급을 더 많이 받든, 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수능 영어 1등급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모집인원이 한정적인 대입, 그리고 수시는 여전히 나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를 제쳐야만 승리할 수 있는 상대평가입니다. 영어 1등급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수시 지원자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 자체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개 수시에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보통 '등급 합'이나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서울권 대학의 평균적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인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를 기준으로 잡아 봅시다. 영어가 1등급이라면 국어, 수학, 탐구영역 중 한 영역만 3등급인 학생까지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영어 1등급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시에서 합격, 불합격을 최종 결정짓는 자격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경쟁에 참여조차 못 하는 수험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이 영어 영역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넘지 못해 최종 경쟁에 참여조차 못했을 성적의 학생들이 영어 절대평가의 덕을 보고 대거 최종 단계에서 경쟁할 경쟁자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수시의 실질 경쟁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올라선 이들의 수시 경쟁력이 나보다 더 뛰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 논술전형, 최저기준 충족한 재수생의 습격 대비해야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큰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논술전형은 주요 수시 전형 가운데 N수생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게다가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N수생들은 재학생보다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등급이 향상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표3〉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재수생의 등급 변화 분석

재수 전 등급 (당시 등급컷)	절대평가 전환 후 등급 변화(6월 모의평가)						합계
	1등급 (90점)	2등급 (80점)	3등급 (70점)	4등급 (60점)	5등급 (50점)	6등급 (40점)	
1등급 (94점)	95.5%	4.5%					100%
2등급 (87점)	58.4%	38.6%	3.0%				100%
3등급 (78점)	38.9%	43.5%	15.5%	2.1%			100%
4등급 (69점)	11.9%	47.2%	33.3%	7.2%	0.3%		100%
5등급 (61점)	4.7%	24.9%	47.2%	18.5%	4.2%	0.5%	100%

※ 종로학원 재수생 표본조사

<표3>을 보면 상대평가였던 2017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절대평가로 치러진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등급이 오른 재수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영어 2등급을 받았던 재수생의 58.4%가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3등급이었던 재수생 중 38.9%는 1등급으로 올랐고, 43.5%는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영어 등급이 오르면, 재수생의 경우 일단 다른 과목 성적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는데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영수가 모두 3등급이었던 재수생이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만 1등급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재수생은 이전에는 '2개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내건 대학에서 자동 탈락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술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감이 오나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 등급이 오른 재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벽을 넘어버리는 순간 내가 최종 사정단계에서 경쟁할 경쟁자들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수험생이라도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이 가져올 변화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면접·논술 준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경쟁자들 속에서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②】

〔수험생의 질문〕

Q. 내신은 평균 1등급대로 꼼꼼히 챙겼지만 교내활동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데다 면접에도 자신이 없어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위권 대학 중에 학생부교과전형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많더라

고요. 그렇다고 제 성적이 무조건 합격을 보장할 만큼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수시 6장을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기준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학생들은 수시 6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시대장의 답변〕

A. 학생처럼 고교 3년간 내신 성적을 아주 성실하게 관리해 온 학생들을 위해 각 대학은 내신 성적을 주요 평가요소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정량평가입니다. 내신 등급이 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 전,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의 과거 입시결과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은 과거 입시결과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면 주요 대학의 지난해 입학전형 결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제시하는 2017학년도 입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발표한 각 대학의 2017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학생이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모르고 있네요. 두 계열 모두 살펴보지요. 우선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공개된 합격자 내신 성적이 1등급대인 학교들만 추려 봤습니다.

○ 인문계열 내신 성적 최상위권 집결지 '서울교대 학부'

〈표1〉 인문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1등급대)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상위 70% CUT	1.1	1.1 ↔ 1.1
가톨릭대(간호)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4	1.4 ↔ 1.4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체 평균	1.4	1.1 ↔ 1.9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5	1.2 ↔ 2.2
한양대	학생부교과	상위 80% CUT	1.5	1.1 ↔ 2.5
중앙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6	1.2 ↔ 2.3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전체 평균	1.6	1.2 ↔ 2.1
홍익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8	1.6 ↔ 2.1
숭실대	학생부우수자	전체 평균	1.9	1.4 ↔ 2.2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전체 평균	1.9	1.5 ↔ 2.6

※ 미발표 대학 제외

인문계열 중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가장 우수한 대학은 서울교대였습니다. 물론 서울교대는 상위 70%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공개하고 있어 전체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공개한 다른 대학들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의 분포를 보면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이 1.1등급으로 동일해 합격자 대부분이 1.1등급의 매우 우수한 내신 평균을 기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교대의 입학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의 비중이 큼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교대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대는 종합대학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은데다 갈수록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합격 안정권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시 카드를 낭비하기 싫다면 말이죠.

다른 대학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1등급 초반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합격자 스펙트럼이 보다 넓어집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이 1.5등급인데 반해 실제 합격자는 2.2등급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상위 80%의 성적은 평균 1.5등급이었지만 2.5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홍익대의 경우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1.8등급이지만 1.2등급 정도의 학생들도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숭실대나 숙명여대도 합격자 평균 성적인 1.9등급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꽤 지원합니다.

만약 1등급 중반대 성적으로 앞서 서울시립대나 한양대에 지원할 경우에는 뽕뽕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겁니다. 평균 성적을 중심으로 넓게 형성된 합격 스펙트럼은 ‘학과가 어디냐에 따라 1등급 중반대 성적이라도 탈락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상위권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학과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신 1등급 중반대 학생이 홍익대나 숭실대, 숙명여대에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대입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싶다면, 여러 대학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 수시 카드 6장 중 1장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부교과전형, ‘하향 지원’ 활용하기 좋은 카드

자, 그럼 이번엔 자연계열의 경우를 볼까요?

(표2) 자연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1등급대)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중앙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4	1.1 ↔ 1.7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체 평균	1.6	1.3 ↔ 1.8
한양대	학생부교과	상위 80% CUT	1.6	1.0 ↔ 3.4
가톨릭대(간호/의예)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7	1.7 ↔ 1.7
홍익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9	1.5 ↔ 2.2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전체 평균	1.9	1.3 ↔ 3.1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전체 평균	1.9	1.4 ↔ 2.3

※ 미발표 대학 제외

자연계열에서는 중앙대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1.4등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합격자들 가운데 최고 성적은 1.1등급, 최저 성적은 1.7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이화여대의 경우 합격자들 평균 내신 성적은 1.6등급, 최고 성적은 1.3등급, 최저 성적은 1.8등급입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이 비슷한 인문계열의 경우보다 합격자 스펙트럼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역대 합격자 평균 성적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한양대의 입시 결과가 조금 색다른데요.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1.6등급인데 합격자들이 분포한 성적 구간을 보면 1.0~3.4등급으로 굉장히 폭넓습니다. 상위 80% 합격자들의 커트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전체 합격자로 넓혀보면 실제 합격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성적 구간은 더 넓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합격자가 분포한 성적 구간이 넓은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학과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성적에 비해 다소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과감히 모험을 걸어 볼만도 합니다.

홍익대, 서울시립대, 세종대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평균 성적이 나란히 1.9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신 평균 1등급대 학생이라면 이들 대학은 안정 지원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지요. 서울시립대의 경우 인문계열에서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1.5등급으로 다소 높았는데, 자연계열은 그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등급까지도 합격이 가능했네요.

○ 칼로 무 자르듯 결과 나오는 게 학생부교과전형? ‘눈치작전’ 필요하다

(표3)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들의 타 대학 지원 경향은?

※ 2017학년도 기준

지원 기준 대학	타 대학 지원 경향(1~5지원은 %순)				
	1지원	2지원	3지원	4지원	5지원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서울대 일반 (9.3%)	경인교대 교직적성장래능력 우수자(8.8%)	고려대 일반 (7.8%)	고려대 융합형인재 (5.4%)	고려대 학교장추천 (4.9%)
가톨릭대(간호) (학생부교과)	울지대(성남) 교과성적우수자 (20%)	건국대 KU 교과우수자 (10%)	고려대 학교장추천 (10%)	성균관대 논술우수 (10%)	한양대 학생부종합 (10%)
가톨릭대(간호/의예) (학생부교과)	건국대 KU 교과우수자 (10%)	아주대 일반전형1(논술) (10%)	서울대 일반전형 (10%)	고려대 융합형인재 (10%)	울지대 교과성적우수자 (10%)
한양대 (학생부교과)	고려대 학교장추천 (8%)	연세대 학생부교과 (8%)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6.4%)	성균관대 성균인재 (5.6%)	연세대 학교장동우수자 (5.2%)
중앙대 (학생부교과)	건국대 KU 교과우수자 (7%)	고려대 학교장추천 (6.3%)	고려대 일반 (5.9%)	인하대 학생부교과 (3.7%)	성균관대 논술우수 (3.5%)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8.9%)	홍익대 학생부교과 (5.2%)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 (4.3%)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3.9%)	가천대(글로벌) 학생부우수자 (3.2%)
홍익대 (학생부교과)	중앙대 논술 (5.4%)	경희대 논술우수자 (4.9%)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4.8%)	성균관대 논술우수 (3.8%)	이화여대 논술전형 (3.4%)
숭실대 (학생부우수자)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6.6%)	홍익대 학생부교과 (5.3%)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 (4.4%)	인하대 학생부교과 (3.7%)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3.4%)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홍익대 학생부교과 (7.5%)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5.9%)	경희대 논술우수자 (5.5%)	건국대 KU 교과우수자 (4.7%)	중앙대 논술 (3.9%)

-종로학원 자체 표본조사

그럼 이번에는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들이 수시 카드를 어

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3>은 종로학원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표1>, <표2>에 등장한 대학(모집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 경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 표본조사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성적, 희망 대학 등 개별적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실제 수시 카드 6장의 구성은 자신의 성적과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수시 카드 6장을 다 채우지 못한 학생이 비슷한 급의 지원 대학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럼, 각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나머지 수시 지원 기회를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많이 할애했는지 봅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시 6장을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으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경우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지원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할 정도면 내신 성적이 '아주 극단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수시 카드도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에만 쓴 것은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 위주로 노린다면, 학생부교과전형만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교대 지원자들이 서울대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대에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전형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지요.

또한 2017학년도에 논술전형으로 운영됐던 고려대 일반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인 고려대 융합형인재 전형에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에도 많이 지원했는데요. 학생부교과전형만 고집할 수 없어 고려대의 논술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면서도 내신 평균등급이 우수한 자신의 강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반영 비율(1단계에서 90%)이 높은 학교장추천전형에 함께 지원하는 것이지요. 합격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했지만 동시에 성균관대 논술전형이나 고려대 일반전형(2017학년도 당시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상향 또는 적정 지원의 일환으로 고려대와 성균관대에 승부를 걸면서 동시에 탄탄한 내신을 바탕으로 중앙대, 건국대, 인하대 학생부교과전형에 안정 지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표3>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대 지원자들의 타 대학 지원 경향을 볼까요?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들은 고려대 학교장추천, 연세대 학생부교과,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등에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지원할 정도라면 이들에게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은 상대적으로 안정 지원이겠지요?

앞서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자 내신 성적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 등으로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보다 꽤 낮은 성적의 학생까지도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자신이 성적이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의 평균 성적

보다 다소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평균 성적만 보고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과거 추가합격 자료 등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의 합격이 가능할 지도 모르니까요.

자, 어떨까요? 생각보다 수시 원서 조합이 다양하지요? 이처럼 여러 층위에서 겹겹이 수시 지원을 할수록 대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도 무작정 학생부교과전형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존 대학을 하나 정해 놓고 <표3>를 통해 상향 지원과 하향 지원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해보세요. 전형을 다양화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③】



[수험생의 질문]

Q. 서울 중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생각인데, 아무리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도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내신 평균 2.3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무리하지 말고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또 수시 6장을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드러나는 학업 역량도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교내 활동 속에서 보인 지적 성취와 발전 가능성, 전공적합성, 인성적 측면 등이 우수하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지요. 그야말로 '종합'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소들은 정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치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선 입학사정관이 나의 역량에 대해 우수하다고 판단할지, 평범하다고 판단할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것이죠.

수험생 입장에서 불확실성에만 기대 모험을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적당한 대학의 범위를 선정한 후 여러 조건을 보고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하기 적당한 대학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겁니다.

○ 상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내신 커트라인 높아

그렇다면 학생이 말한 중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살펴볼까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 및 전형을 중심으로 합격자 평균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표1) 인문·자연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중상위권 대학)

계열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인문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체 평균	1.6	1.4 ↔ 2.1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상위 80% Cut	1.7	1.2 ↔ 3.0
	중앙대	학생부종합(다빈치형)	전체 평균	2.2	1.6 ↔ 3.4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전체 평균	2.3	1.8 ↔ 3.3
	중앙대	학생부종합(탐구형)	전체 평균	3.3	2.7 ↔ 4.1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상위 80% Cut	1.4	1.1 ↔ 2.1
자연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체 평균	1.6	1.3 ↔ 2.4
	중앙대	학생부종합(다빈치형)	전체 평균	2.1	1.5 ↔ 2.5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전체 평균	2.3	1.6 ↔ 3.3
	중앙대	학생부종합(탐구형)	전체 평균	3.1	2.1 ↔ 4.8

※ 미발표 대학 제외

우선 인문계열의 경우 경희대 고교연계전형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1.6등급으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경희대 고교연계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도 내신 성적을 비교적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입시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네요. 만약 치열한 내신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의 합격자 상위 80% 커트라인은 1.7등급으로, 최대 3.0등급까지도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상위권 대학으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경쟁이 유난히 치열한 환경 탓에 과거에는 내신 반영비중이 적은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발판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지요. 특히 인문계열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경우를 볼까요?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합격자 상위 80%의 커트라인이 1.4등급으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2.1등급까지도 합격이 가능하긴 했지만, 워낙 평균 성적 자체가 높은 것으로 보아 2등급대로 합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인 듯 합니다. 경희대 고교연계전형 또한 학생이 말한 2.3등급의 성적으로는 여러모로 내신 싸움에서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생의 성적보다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 성적에 비해 조금 힘들어 보이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무작정 삼가란 뜻이 아닙니다. 입시 정책, 지원자들의 특성 등 입시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그 해 합격자 커트라인은 과거 입시 결과와는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1>의 성적이 절대적인 지침이 아니지요. 또한 내신 성적 대신 다른 면에서 나의 우수한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특성 상 얼마든지 ‘역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 성적보다 합격자 평균 성적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려 한다면 그만큼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면접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 내신 맞춰 지원하면 끝? 그러다 ‘역전패’

그럼 이번에는 보다 수월해 보이는 대학들을 볼까요? <표1>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표1) 인문·자연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중상위권 대학)

계열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인문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체 평균	1.6	1.4 ↔ 2.1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상위 80% Cut	1.7	1.2 ↔ 3.0
	중앙대	학생부종합(다빈치형)	전체 평균	2.2	1.6 ↔ 3.4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전체 평균	2.3	1.8 ↔ 3.3
	중앙대	학생부종합(탐구형)	전체 평균	3.3	2.7 ↔ 4.1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상위 80% Cut	1.4	1.1 ↔ 2.1
자연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체 평균	1.6	1.3 ↔ 2.4
	중앙대	학생부종합(다빈치형)	전체 평균	2.1	1.5 ↔ 2.5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전체 평균	2.3	1.6 ↔ 3.3
	중앙대	학생부종합(탐구형)	전체 평균	3.1	2.1 ↔ 4.8

※ 미발표 대학 제외

중앙대와 서울시립대는 앞서 두 대학에 비해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다소 낮습니다. 인문·자연계열 모두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2.1~2.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학생의 내신 성적이라면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이니 합격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들 대학의 경우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은 곧 학생보다 낮은 내신 성적의 학생이 지원해 학생을 제치고 합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돌고 돌아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한다면, 내신 성적에만 기대지 말고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 6번으로 제한된 수시 지원 기회를 최대한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내신 성적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신 성적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합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학생부가 대부분 나와 있는 수험생이라면 어떤 대학에 지원하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공을 들이세요.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은 ‘내신’이 아니라 ‘노력’이 만들어 줄 겁니다.

○ “나는 무조건 학종으로 대학 간다”... ‘6학종’도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대학들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이 나머지 수시 카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의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표2)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의 타 대학 지원 경험은?

* 2017학년도 기준

지원 기준 대학	타 대학 지원 경험(1~5지원은 %순)				
	1지원	2지원	3지원	4지원	5지원
연세대 (활동우수형)	서울대 일반 (15.4%)	고려대 일반 (14.7%)	고려대 융합형인재 (10.1%)	고려대 학교장추천 (8.7%)	성균관대 논술우수 (5.1%)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6.8%)	건국대 KU자기추천 (5.3%)	성균관대 논술우수 (4.7%)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4.6%)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4.4%)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6.8%)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6.3%)	건국대 KU자기추천 (5.8%)	성균관대 성균인재 (3.8%)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3.7%)
중앙대 (탐구형인재)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8%)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7%)	성균관대 논술우수 (5.6%)	성균관대 성균인재 (4.9%)	고려대 일반 (3.5%)

-종로학원 자체 표본조사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지원자들의 경우 수시 구성이 조금 다양합니다. 연세대 지원자들의 타 대학 지원 경향을 보면, 2017학년도 당시 논술전형으로 운영됐던 고려대 일반전형과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에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술전형은 내신 반영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신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수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고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에도 많이 지원했네요. 이는 아마도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지원자들의 성적대가 굉장히 다양하단 뜻이겠죠.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고 싶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원 대학 외에 타 대학 지원 시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로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희대(네오르네상스)·건국대(KU자기추천)·서울시립대(학생부종합)·중앙대(다빈치형)·한양대(학생부종합)는 서로 지원자가 상당히 겹치지요.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고교 3년간 꾸준히 학생부종합전형을 관리해 온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보니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만을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을 하는 고교생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들여 완성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이른바 '6학종(6번의 수시 기회에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 전형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 가장 자신있는 전형 하나를 택해 집중 공략하는 것이 합격률을 보다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신의 내신 성적이나 논술 대비도에 따라 '5학종+1논술', '5학종+1교과' 정도의 조합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실제로 <표2>를 보면 경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 골고루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의 일환으로 1장의 수시 카드를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에 할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 절도 있는 시간계획으로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추산해서 모두 공부에 투입해야 한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④】



[수험생의 질문]

Q. 내신 성적이 평균 4등급대로 좋지 않아 고민인 수험생입니다. 낮은 내신 성적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위주로 공부하면서 논술 대비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시 지원이 다가오다 보니 낮은 내신 성적이 마음에 걸려 요즘 공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술전형의 내신 반영비중이 낮은 편이라 하더라도 제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정시를 목표로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 반영방법은 '논술 70%+학생부 30%'가 일반적입니다. 대학에 따라 학생부 30%에 비교과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내신 평균이 4, 5등급대인 학생들에게는 학생부(교과) 30%도 꽤 부담스러운 비중이지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부에 주어지는 기본점수와 등급간 점수차 등을 고려한 실질 반영비율은 1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제 논술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보면 제 이야기가 더 와닿을 겁니다.

○ 논술전형 합격자 내신 성적 순위, 일반적인 대학 순위와 달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 및 전형을 중심으로 합격자 평균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환산점수를 공개한 대학은 제외하였습니다. 일단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표1) 인문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논술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

순위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1	이화여대	논술	전체 평균	1.9	1.3 ↔ 2.4
2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2.2	1.9 ↔ 2.5
3	중앙대	논술	전체 평균	2.4	1.5 ↔ 3.0
4	홍익대	논술	전체 평균	2.8	2.4 ↔ 3.1
5	경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0	1.9 ↔ 3.6
6	가톨릭대(간호)	논술	전체 평균	3.1	3.1 ↔ 3.1
7	서울시립대	논술	전체 평균	3.3	2.9 ↔ 3.9
8	성균관대	논술우수	전체 평균	3.3	3.1 ↔ 3.6
9	송실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4	2.7 ↔ 4.0
10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5	2.4 ↔ 4.5
11	광운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5	3.1 ↔ 4.0
12	한국외대	논술	전체 평균	3.6	3.0 ↔ 4.5
13	연세대	일반	상위 80% Cut	3.9	2.1 ↔ 6.0
14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9	3.1 ↔ 4.5
15	세종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9	3.4 ↔ 4.3

※ 미발표 대학 제외

편의를 위해 공개된 합격자 평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순위와 <표1>의 대학 순위가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대, 광운대가 연세대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고, 경희대보다 성균관대의 순위가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연세대는 합격자 상위 80% 커트라인)은 1.9등급부터 3.9등급까지 펼쳐져 있

습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아무리 내신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합격자 평균 성적이 3등급대에 형성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논술전형의 경우 경희대 합격자 평균 성적이 3.0등급, 성균관대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3.3등급, 연세대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3.9등급입니다. 수시 전형 가운데 내신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운 전형임이 분명하지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보다 더 눈여겨 볼 점은 합격자 성적 분포 구간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무려 6등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특목·자사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이들은 고교 환경 탓에 내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업역량은 뛰어난 편이라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논술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경우 내신의 불리함을 뛰어 넘어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일반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위권 대학의 경우 합격자 성적 분포 구간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 넓지 않습니다. 광운대는 3.1등급에서 4.0등급 사이에서 합격자가 나왔고, 서울여대는 3.1등급에서 4.5등급 사이에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양한 등급대에서 합격자가 나온 상위권 대학과 달리 내신 평균 3, 4등급대에서 대부분의 합격자가 결정된 것이죠. 합격자 성적 분포 등급대가 특정 구역으로 수렴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에 비해 합격자들의 논술고사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합격자 내신 성적 높다고? “졸지마”

〈표2〉 자연계열 - 대학이 공식 발표한 논술전형 합격자 점수가 높은 순

순위	대학	전형	합격자 정보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범위
			점수 기준	내신 등급	
1	이화여대	논술	전체 평균	1.9	1.2 ↔ 2.6
2	중앙대	논술	전체 평균	2.3	1.3 ↔ 2.9
3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2.4	2.1 ↔ 2.9
4	가톨릭대(간호/외예)	논술	전체 평균	2.6	1.9 ↔ 3.3
5	성균관대	논술우수	전체 평균	3.0	1.9 ↔ 3.3
6	홍익대	논술	전체 평균	3.0	2.3 ↔ 3.6
7	경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3	2.4 ↔ 4.0
8	연세대	일반	상위 80% Cut	3.5	2.2 ↔ 4.7
9	서울시립대	논술	전체 평균	3.5	2.7 ↔ 4.9
10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6	2.8 ↔ 4.2
11	송실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7	3.2 ↔ 5.2
12	광운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3.9	3.0 ↔ 4.5
13	세종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4.2	3.6 ↔ 4.6
14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전체 평균	4.3	3.8 ↔ 4.9

※ 미발표 대학 제외

이번에 자연계열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전형 합격자의 성적은 1.9등급부터 4.3등급까지 다양합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내신 평균 4등급대 성적으로 포기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문계열과 비교해 자연계열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연세대는 상위 80% 합격자의 커트라인이 인문계열 3.9등

급보다 높은 3.5등급이고 최대 4.7등급까지만 합격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6등급 합격자도 있었는데 말이죠. 중앙대 논술전형의 경우 합격자 내신 평균 성적이 2.3등급인데다 합격 커트라인도 2.9등급으로 2등급을 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도 합격자 내신 평균 성적이 3.0등급, 합격 커트라인이 3.3등급으로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는 대학이 내신 성적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에 따른 데이터로 보입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과학 교과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이 좋을수록 논술고사 성적도 좋을 확률이 큰 것이죠.

한편, 중위권 대학일수록 합격자 성적 분포 구간이 좁은 것은 인문계열과 비슷한 점입니다.

○ 지원 대학 결정?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관건

‘연세대<홍익대’, ‘성균관대<동국대’

합격자의 내신 평균 성적 순위가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나타나 다소 혼란스럽지 않나요? 수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논술전형 지원 선배들이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지를 통해 힌트를 얻어 보세요.

〈표3〉 주요 대학 논술전형 지원자들의 타 대학 지원 경향은?

* 2017학년도 기준

지원 기준 대학	타 대학 지원 경향(1~5지원은 %순)				
	1지원	2지원	3지원	4지원	5지원
이화여대 (논술)	성균관대 논술우수 (17.3%)	고려대 일반 (13.7%)	경희대 논술우수자 (12.7%)	연세대 일반 (8%)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7.1%)
동국대 (논술우수자)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11.7%)	세종대 논술우수자 (9.4%)	중앙대 논술 (9.2%)	한국외대 논술 (6.7%)	한양대 논술 (5.5%)
중앙대 (논술)	성균관대 논술우수 (18.3%)	경희대 논술우수자 (13.4%)	고려대 일반 (12.9%)	연세대 일반 (7.3%)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7.2%)
홍익대 (논술)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10.6%)	인하대 논술우수자 (8.5%)	동국대 논술우수자 (8.3%)	경희대 논술우수자 (7.8%)	광운대 논술우수자 (7.1%)
경희대 (논술우수자)	중앙대 논술 (14.5%)	성균관대 논술우수 (12.5%)	고려대 일반 (8.9%)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7.2%)	한양대 논술 (5.6%)
서울시립대 (논술)	성균관대 논술우수 (17.1%)	고려대 일반 (11.8%)	경희대 논술우수자 (9.4%)	연세대 일반 (6.9%)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5%)
성균관대 (논술우수)	고려대 일반 (13.8%)	중앙대 논술 (13.1%)	연세대 일반 (8.8%)	서강대 논술 (8.6%)	경희대 논술우수자 (8.2%)
송실대 (논술우수자)	세종대 논술우수자 (10.2%)	중앙대 논술 (9.7%)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9.2%)	아주대 일반전형1 (논술) (6.8%)	한국외대 논술 (6%)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중앙대 논술 (9.3%)	이화여대 논술 (9.1%)	한국외대 논술 (8.4%)	성균관대 논술 (7.6%)	경희대 논술우수자 (7.4%)
광운대 (논술우수자)	세종대 논술우수자 (12.9%)	아주대 일반전형1 (논술) (9.7%)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7.6%)	한양대(에리카) 논술 (6%)	서울과학기술대 논술위주(일반) (5.6%)
한국외대 (논술전형)	성균관대 논술우수 (14.5%)	경희대 논술우수자 (12.6%)	동국대 논술우수자 (8.4%)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7.6%)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6.8%)
연세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논술우수 (22.6%)	서강대 논술 (13.8%)	중앙대 논술 (13.3%)	경희대 논술우수자 (7.3%)	한양대 논술 (7%)
세종대 (논술우수자)	광운대 논술우수자 (8.8%)	동국대 논술우수자 (6.7%)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6.1%)	송실대 논술우수자 (5.7%)	경희대 논술우수자 (5.2%)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세종대 논술우수자 (7.7%)	가천대(글로벌) 학생부적성우수자 (5.9%)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5.4%)	한양대(에리카) 논술 (4.2%)	경기대 논술우수자 (4.1%)

-종로학원 자체 표본조사

일단 논술전형 지원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보면 '난 무조건 논술전형으로 대학간다'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6장의 수시 카드를 모두 논술전형에 투자한 것이죠. 서울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 논술전형 지원자들은 하나 같이 '6논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은 6개의 지원 대학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 순위가 일반적인 대학 순위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다른 수시 카드도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중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다른 수시 카드도 중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존재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논술고사 성적이 뛰어나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까다롭지요.

단적인 예로, 2018학년도 기준 연세대 일반전형은 인문계열 기준, 국어, 수학, 사탐 2과목 총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7 이내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연계열 국어, 수학, 과탐 2과목 등 총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8 이내일 것을 요구하지요. 단, 절대평가인 영어는 반드시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4개 영역(사탐 2과목 각각 산정)의 등급 합이 7이내 여야 하므로 모두 2등급을 받아도 불합격할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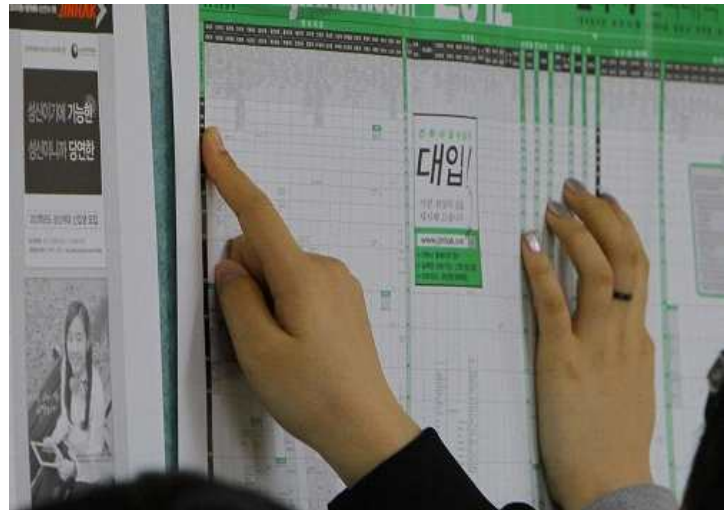
반면 세종대의 경우 국·수·영·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인문) 또는 7(자연) 이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1등급을 얻기가 쉬운 절대평가 영어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상 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을 확보하면, 나머지 2개 영역에서 3등급을 받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처럼 논술전형 최종 합격을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감안해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욕심을 부려 지원하면 귀중한 수시 카드를 낭비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꽤 있으니 수능 성적을 장담할 수 없다면, 이들 대학을 위주로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는 영역별 독해는 물론 문제 풀이의 방법과 순서에 대한 최적화된 자기만의 문제풀이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을 여름방학에 반드시 정립하도록 하자.

하위권 수험생은 국어의 전 영역에서 독해 및 문제 풀이 감각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효과가 높은 문학 영역 중에서 소설 영역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⑤】



[이런 수험생 주목!]

- ① 일반고 인문계열 수험생
- ② 내신 성적이 높고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 경험이 있는 수험생
- ③ 학생부 독서활동상황, 동아리활동 내역이 풍부한 수험생

[수험생의 질문]

Q.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수시모집. 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원서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일반고에 재학 중이고, 고교 3년간의 내신 성적은 1.6등급입니다. 반장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교내 시사 경제 토론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하면서 2학년 때 부장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 학생부 독서활동상황도 풍부한 편이고요.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원서 6장을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일반고에 재학 중인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이군요. 내신 성적도 뛰어나고 교내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겠군요. 평소 책 읽는 습관을 잘 갖추고 있고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도 꾸준히 활동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가장 먼저 다음 <표1>을 한번 볼까요?

<표1> 내신 등급대별 수시 지원 횟수 분석(인문계열 최상위권)

내신급간	평균지원횟수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및 적성
1.0~1.1	4.85	2.92	1.62	0.31	0.00
1.1~1.3	4.45	2.68	0.99	0.76	0.02
1.3~1.5	4.69	2.40	0.83	1.43	0.03
1.5~1.8	4.72	2.17	0.88	1.64	0.02
1.8~2.0	5.11	1.85	1.11	2.13	0.02

○ 내신 1점대 후반... 논술, 교과전형 지원을 ↑

<표1>은 내신 등급대별로 수험생이 수시모집에 평균 몇 회 가량 지원하고, 주로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지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수시모집은 학생 한 명당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데, 평균 지원횟수는 그보다 적은 수치군요. 6개의 지원카드를 모두 다 쓰는 학생도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3, 4개 대학에만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1.8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횟수가 가장 높습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고, 다른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1.1 등급의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원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의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은 서울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려대, 연세대 등의 대학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병행해 지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1.3 등급부터는 논술전형의 지원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네요. 1점대 후반의 교과 성적으로 1점대 초반의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경쟁하면 불리할 것이므로 논술전형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1.8~2.0 등급부터는 다시 학생부교과전형의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등급 급간의 학생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 안정권? 1.5등급 이내

내신 등급대별로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주로 지원하고 합격률은 어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입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세요.

〈표2〉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율		합격률	
내신급간	순위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고려대	36.0%	고려대	42.2%
	2	이화여대	20.6%	이화여대	24.4%
	3	연세대	13.9%	연세대	11.4%
	4	한양대	10.7%	중앙대	7.8%
	5	중앙대	7.0%	한양대	6.3%
	6	서강대	3.2%	한국외대	1.4%
	7	서울교대	2.7%	아주대	1.2%
	8	한국외대	1.3%	서울교대	1.2%
	9	아주대	0.9%	동국대	0.8%
	10	건국대	0.8%	건국대	0.8%
1.5~2.0	1	이화여대	14.7%	이화여대	21.8%
	2	서강대	10.6%	고려대	9.8%
	3	홍익대	6.0%	국민대	8.4%
	4	고려대	5.6%	홍익대	7.6%
	5	건국대	5.6%	아주대	5.8%
	6	국민대	5.6%	서강대	4.9%
	7	한국외대	5.6%	중앙대	4.4%
	8	동국대	5.0%	숙명여대	4.4%
	9	중앙대	5.0%	건국대	3.6%
	10	서울교대	4.3%	송실대	3.6%

※ 연세대, 서강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미실시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연세대와 서강대는 논외로 하고 <표2>를 살펴보겠습니다.

<표2>에 나와 있는 두 급간을 비교해보세요. 1~1.5 등급 구간에선 고려대, 이화여대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고 합격률 또한 동일한 순입니다. 이 등급 급간에서 고려대의 합격률은 무려 42.2%에 달하네요.

하지만 1.5~2.0 등급 구간의 합격률은 어떤가요? 이화여대는 1~1.5 등급 구간에서와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려대 합격률이 9.8%로 급락했네요. 고려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적어도 1.5등급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율을 살펴보다도 1~1.5 등급 구간에서 고려대 지원율이 36.0%인데 반해 1.5~2.0 등급 구간의 지원율 순위권에선 고려대의 지원율은 5.6%로 하락했습니다. 즉, 1.5~2.0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 스스로도 고려대와 같은 최상위권대학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내신 1.5~2.0 등급, 학생부종합전형에 적극 지원 양상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은 어떨까요? 다음 표를 살펴보세요.

〈표3〉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율		합격률	
내신급간	순위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서울대	27.9%	서울대	25.8%
	2	고려대	16.3%	경희대	14.3%
	3	연세대	13.2%	고려대	13.9%
	4	경희대	9.9%	연세대	12.8%
	5	성균관대	8.4%	중앙대	9.2%
	6	중앙대	7.2%	성균관대	8.1%
	7	이화여대	4.4%	이화여대	5.5%
	8	서강대	3.8%	한양대	3.8%
	9	한양대	3.8%	서강대	2.8%
	10	서울시립대	1.8%	서울시립대	1.1%
1.5~2.0	1	중앙대	16.9%	중앙대	24.2%
	2	경희대	15.8%	경희대	21.5%
	3	서울대	10.6%	이화여대	13.5%
	4	이화여대	10.0%	서울시립대	8.2%
	5	고려대	8.4%	고려대	5.2%
	6	성균관대	6.2%	성균관대	4.6%
	7	서울시립대	6.1%	서울대	4.4%
	8	연세대	4.0%	한양대	3.1%
	9	한양대	3.7%	아주대	2.5%
	10	서강대	3.3%	서강대	2.2%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서울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점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2.0 등급 구간의 지원율을 살펴볼까요? 학생부교과전형에선 순위권 내에 이름이 없었던 연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각각 10.6%,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2.0 등급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비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1.5~2.0 등급 학생들이 연세대와 고려대를 지원할 때 학생 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논술전형, 내신 등급 영향력 크지 않아

〈표4〉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논술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고려대	39.6%	연세대	30.0%
	2	연세대	26.5%	고려대	30.0%
	3	성균관대	14.3%	이화여대	11.7%
	4	이화여대	7.4%	성균관대	11.7%
	5	서강대	6.5%	중앙대	8.3%
	6	중앙대	2.6%	서강대	5.0%
	7	경희대	1.3%	한양대	1.7%
	8	한양대	0.9%	경희대	1.7%
	9	한국외대	0.4%		
	10	서울시립대	0.4%		
1.5~2.0	1	고려대	22.1%	성균관대	22.7%
	2	성균관대	18.2%	고려대	18.4%
	3	연세대	16.0%	중앙대	11.7%
	4	중앙대	8.0%	연세대	10.4%
	5	서울시립대	7.9%	이화여대	8.0%
	6	이화여대	7.0%	서강대	6.1%
	7	서강대	6.5%	경희대	5.5%
	8	경희대	6.0%	서울시립대	4.3%
	9	한국외대	3.1%	건국대	4.3%
	10	한양대	1.5%	한국외대	1.8%

※ 고려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미 실시

<표4>는 과거의 지원 경향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가 포함됐습니다만, 고려대는 2018학년도부터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신 1~1.5등급, 1.5~2등급 구간에서 모두 고려대 논술전형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긴 하나, 올해부터는 이 루트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를 감안하고 <표4>를 보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1.5~2.0 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1~1.5 등급 내신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두 내신 급간의 합격률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달리 내신 성적보다 논술고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높음에 따라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1.6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진 경영학과 지망 수험생의 최적의 수시모집 원서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5〉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의 원서 조합 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명칭	모집단위	전형일정
1	서울대	종합	일반전형	경영대학	면접: 11월 24일(금)
2	연세대	종합	활동우수형	경영대학	면접: 12월 2일(토)
3*	고려대	종합	고교추천II	경영대학	면접: 11월 25일(토)
	고려대	종합	일반전형	자유전공학부	면접: 12월 3일(일)
4	연세대	논술	일반전형	경영대학	논술: 11월 18일(토)
5	서강대	논술	논술	경영학부	논술: 11월 19일(일)
6	중앙대	논술	논술우수	경영학과	논술: 11월 26일(일)

*고려대 고교추천I, 고교추천II, 일반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 대학별 논술·면접일정 확인해 최적의 조합을

고려대의 경우 고교추천I, 고교추천II, 일반전형 중 1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셋 중 한 전형을 선택해 지원해야 합니다. 연세대는 성격이 다른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전형별로 최적의 지원 조합을 찾을 때는 면접과 논술고사 시험일 등 대학별 고사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려대 일반전형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대신 경영대학에 지원할 경우 면접일이 12월 2일(토)로 연세대 학생부종합 활동 우수형의 면접 일자와 겹치게 됩니다. 물론 날짜가 겹쳐도 면접 시간이 확연히 다르면 두 대학의 면접에 모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면접 시간은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두 대학의 서류평가를 다 통과하더라도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험을 걸어보고 싶다면 자유전공학부 대신 경영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기회를 잡고 싶다면, 차선책으로 고려대 일반전형에 경영대학 대신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1학기부터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시작하고, 3학기 이후에는 △경영대학 △문과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정경대학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가운데 한 곳에 지원해 배정받은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대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경영대학이 105명, 자유전공학부가 31명으로 자유전공학부가 훨씬 적습니다.

합격 안정권 대학에 논술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채점 해본 뒤 논술고사에 응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수시모집에 덜컥 합격해버리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⑥】



[이런 수험생 주목!]

- ① 일반고 자연계열 수험생
- ② 내신 성적이 높고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 경험이 있는 수험생
- ③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활동이 풍부한 수험생

[수험생의 질문]

Q. 지방 일반고에 재학 중인 이과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1.3등급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학자가 꿈이라 로봇 동아리의 부장을 맡아 꾸준히 활동을 해 왔어요. 교내 경시대회에는 매년 참여해 상을 받았고 학교가 과학중점학교여서 인근 대학과 연계한 소논문 아카데미에도 참여해 2편의 소논문을 썼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물리 심화 수업도 이수 했고요.

의학 계열에는 뜻이 없지만 공학도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공학도가 꿈인 학생이군요.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부도 풍부하게 잘 채워 온 편이라 최상위권 대학 수시전형에 충분히 지원해 볼만 해요. 학생과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떤 조합으로 수시 원서를 쓰는지 살펴볼까요? 아래 표는 일반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지원 횟수를 분석한 표입니다.

〈표1〉 내신 등급대별 수시 지원 횟수 분석(자연계열 최상위권)

내신급간	평균지원횟수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1.0~1.1	5.50	3.55	1.18	0.77	0.00
1.1~1.3	4.89	3.22	0.79	0.84	0.04
1.3~1.5	5.13	2.84	0.77	1.48	0.05
1.5~1.8	4.81	2.24	0.78	1.78	0.01
1.8~2.0	5.15	2.19	0.94	1.99	0.03

<표1>을 보면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수시지원 횟수가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시지원(2018 수시 마무리 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⑦) 기사로 확인하려면 클릭) 횟수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어요. 자연계열은 정시에서 합불 예측 여부의 불확실성이 인문계열보다 높기 때문에 합격가능성을 높이하고자 수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수시에서 승기를 확 잡고 수능을 대비하는 편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위주로 준비해야 할까요?

표만 봐도 요즘 대세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여러 통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이 가장 넓다보니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평소 비교과 영역을 열심히 챙겨가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신 경쟁력이 충분한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보다 논술전형을 많이 택한 것은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내신급간이 1.0~1.1등급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율이 높은 것은 물론, 학생부교과전형보다 논술전형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역시도 최상위권대학들의 전형별 수시 모집인원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나마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에서 2단계 평가인 면접 대상자를 선발

할 때, 학생부 교과영역을 정량평가한 결과와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정성평가한 결과를 50%씩 반영할 뿐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260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집인원이 적으면 합격선이 높게 형성됩니다.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다른 요소로 역전이 가능한 전형을 택하는 것이지요. 260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비하면 683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상대적으로 문이 넓으니깐요.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 실기위주 전형인 특기자 전형에도 많이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인문계열은 어학과 관련된 학과에서 모집하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 대부분이지요. 반면 자연계열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학·과학 과목에 자신이 있고, 남다른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특기자 전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내신 1.5등급 이내 교과전형 합격률 1위 ‘고려대’

그럼, 전형별로 어떤 대학의 인기가 높은지 살펴봅시다. 아래 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한해 내신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주로 지원하고 합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표2〉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학생부교과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고려대	27.2	고려대	35.0
	2	한양대	24.1	이화여대	16.7
	3	연세대	14.8	한양대	16.2
	4	이화여대	11.6	연세대	11.7
	5	중앙대	6.6	중앙대	7.5
	6	아주대	2.5	아주대	3.3
	7	서강대	1.8	서강대	1.6
	8	인제대	1.5	건국대	1.6
	9	건국대	1.5	인하대	1.4
	10	전남대(광주)	1.3	전남대(광주)	0.9
1.5~2	1	이화여대	19.5	이화여대	32.3
	2	아주대	9.5	고려대	14.5
	3	고려대	8.9	아주대	6.8
	4	건국대	7.4	중앙대	4.3
	5	중앙대	7.0	인하대	3.4
	6	서강대	5.7	건국대	3.4
	7	인하대	5.5	연세대	2.6
	8	연세대	5.3	광운대	2.6
	9	동국대	3.0	동국대	2.6
	10	한양대	2.3	인천대	2.1

※ 연세대, 서강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미 실시

학생이 속하는 내신 1~1.5등급 구간에서는 고려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순으로 많이 지원했네요(201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미 실시 대학 제외). 하지만 실제 합격률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순으로 높습니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고려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장추천전형에서 2018학년도부터 고교추천 I 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의 추천인원이 고교 당 인문계 모집단위 2명, 자연계 모집단위 2명에서 3학년 재적 학생수의 4%(고교별 추천 인원은 고교추천 I, 고교추천 II 합산)로 크게 늘었습니다. 모집인원은 635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고교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고교에 다니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5~2등급 구간에서도 합격률이 제법 높은 이화여대는 상위권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018학년도에 고교추천전형으로만 480명을 선발하지요.

참고로 내신 평균등급이 1~1.5등급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상위 10개 대학 중 인제대와 전남대(광주)가 포함된 것은 의예과 때문입니다. 의대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한 2017학년도에 이어 올해도 의대 전체 선발인원이 94명 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연계 최상위권의 경우 의대 진학률에 따라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커트라인이 뒤바뀌기도 하므로 눈여겨봐야 할 변수입니다.

○ ‘수시 횡수 제한’에 포함 안 되는 숨은 보석 찾아라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도 한 번 살펴볼까요?

〈표3〉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서울대	29.8	서울대	30.1
	2	고려대	13.2	고려대	12.9
	3	연세대	9.9	연세대	8.8
	4	성균관대	7.8	성균관대	6.8
	5	KAIST	6.3	경희대	6.8
	6	한양대	6.2	포항공대	5.9
	7	경희대	5.1	KAIST	5.4
	8	포항공대	4.9	한양대	5.4
	9	중앙대	2.9	이화여대	4.1
	10	이화여대	2.5	중앙대	3.3
1.5~2	1	서울대	16.3	중앙대	18.9
	2	중앙대	13.6	경희대	16.0
	3	경희대	12.5	서울대	11.4
	4	고려대	10.0	이화여대	10.5
	5	이화여대	6.6	고려대	7.4
	6	성균관대	5.8	서울시립대	6.8
	7	서울시립대	5.6	아주대	6.0
	8	한양대	5.1	성균관대	4.8
	9	연세대	3.9	한양대	3.7
	10	아주대	3.4	연세대	2.5

내신 평균등급 1~1.5인 학생들 상당수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때문입니다. 지원율과 합격률 모두 1위지요? 합격자가 많긴 하지만 합격자들의 성적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수시 전형별 학교 내신 합격선을 보면 서울대 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내신 평균 성적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1.2등급, 일반전형이 1.6등급입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합격률이 높은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2018학년도에는 고교추천Ⅱ, 일반전형으로 나뉨)과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전형(2018학년도 기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각각 1.8등급, 1.5등급이지요.

1~1.5등급 지원을 5위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지원 횡수가 포함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공학도의 꿈을 키우는 학생이라면 수시 6회 지원과는 별도로

KAIST의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단, KAIST와 함께 많이 지원하는 포항공대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므로 수시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교과 영역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면, 내신 1~1.5등급 합격률 10위 안에 있는 대학 중 연세대 학생부종합(면접형)과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형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2018학년도에 신설된 연세대 학생부종합(면접형)의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절충한 형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결과 50%, 학생부 비교과 정성평가 결과 50%를 반영해 모집인원 대비 3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긴 하나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의 반영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이 우수한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전형은 2017학년도에 운영된 학교생활충실자 전형과 고교대학연계전형을 통합한 것으로 2017학년도 학교생활충실자 전형과 비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50%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순수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순수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요.

○ 논술전형 지원으로 합격 가능성 높여라

〈표4〉 등급대별 지원을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논술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1.5	1	고려대	29.8	고려대	33.3
	2	연세대	18.4	성균관대	30.6
	3	성균관대	15.4	이화여대	13.9
	4	이화여대	7.0	울산대	8.3
	5	가톨릭대(성외)	6.6	연세대	8.3
	6	울산대	5.7	한양대	2.8
	7	경희대	5.3	경희대	2.8
	8	중앙대	4.4		
	9	한양대	2.6		
	10	서강대	1.8		
1.5~2	1	고려대	24.3	고려대	21.4
	2	성균관대	17.6	연세대	16.5
	3	연세대	14.5	성균관대	15.5
	4	중앙대	6.2	한양대	8.7
	5	이화여대	6.1	서울시립대	7.8
	6	한양대	5.4	이화여대	7.8
	7	서강대	5.1	중앙대	6.8
	8	경희대	4.4	경희대	3.9
	9	울산대	3.3	인하대	3.9
	10	가톨릭대(성외)	3.3	홍익대	1.9

※ 고려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미실시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표4>를 보면 내신 평균 1~1.5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해도 논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가톨릭대, 서강대, 중앙대 논술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12.8%나 되지만 최종 합격자는 없지요.

내신 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수능형 문제에 자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예과에 진학하는 통로로 논술전형을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전형에서 보이지 않던 울산대가 논술전형으로 많이 지원한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된 이유이지요.

내신 1~1.5등급, 1.5~2등급 구간에서 합격률 1위를 기록한 고려대가 2018학년도부터 논술전형을 폐지하는 등 논술전형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전형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논술에 자신만 있다면, 논술전형을 고려해 봐도 좋습니다. 특히 수능 후에 논술고사가 있는 대학을 잘 활용하면 위험은 줄이고 가능성은 극대화하는 수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권 대학은 모두 수능 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므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보고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요.

○ 각 대학의 전형 일정 고려해야

자, 그럼 이를 토대로 학생이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형들을 정리해 볼까요?

〈표5〉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의 원서 조합 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명칭	모집단위	면접일정
1	서울대	종합	일반전형	기계항공공학부	면접: 11월 24일(금)
2	연세대	종합	활동우수형	기계공학부	면접: 12월 2일(토)
	고려대	종합	일반전형	기계공학부	면접: 12월 2일(토)
3*	고려대	교과	고교추천Ⅰ	기계공학부	면접: 10월 22일(일)
	고려대	종합	고교추천Ⅱ	기계공학부	면접: 11월 25일(토)
4	연세대	논술	일반전형	기계공학부	논술: 11월 18일(토)
5	성균관대	논술	논술우수	공학계열	논술: 11월 19일(일)
6	한양대	논술	논술	기계공학부	논술: 11월 26일(일)
*	KAIST	종합	일반전형	-	면접: 11월 29일(수)

*고려대 고교추천Ⅰ, 고교추천Ⅱ, 일반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연세대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의 면접과 고려대 일반전형 면접 일정이 겹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두 군데 모두 지원할 수도 있으나, 두 대학에서 모두 서류 통과를 하더라도 면접 시간이 겹치면 한 군데는 결국 포기해야 합니다.

차선책으로 연세대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려대 고교추천Ⅰ 또는 고교추천Ⅱ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려대 일반전형, 고교추천Ⅰ, 고교추천Ⅱ 사이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⑦】



[이런 수험생 주목!]

- ① 내신 3등급 내외의 일반고 인문계열 수험생
- ② 학년별 내신 성적 편차가 심하지만 진로가 뚜렷한 수험생
- ③ 교내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수험생

[수험생의 질문]

Q. 서울 주요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저의 내신 성적은 3.0 등급인데요, 문제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4, 5등급을 받은 과목도 있어요. 2학년 때 성적이 오르다가 3학년 때는 더 올라서 아슬아슬하게 평균 3.0등급을 맞추게 됐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무척 좋아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고교 때는 이와 관련한 활동도 다채롭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교내 신문반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며 글을 써보기도 했고, 2학년 때는 학교에 없던 문집출판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동아리원들과 소설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작소설을 기획하고 직접 써보면서 온라인에 연재한 뒤 그것을 엮어 문집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명확한 진로를 바탕으로 관련 활동을 고교 3년간 꾸준히 해온 학생이네요. 자신의 성적, 비교과 활동 내역으로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우선 다음 자료를 살펴볼까요?

〈표1〉 내신 등급대별 수시 지원 횟수 분석(인문계열 중상위권)

내신구간	평균지원횟수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및 적성
2.0~2.3	4.95	1.76	1.11	2.04	0.03
2.3~2.5	4.86	1.53	1.11	2.17	0.05
2.5~3.0	4.88	1.27	0.98	2.58	0.05
3.0~3.5	4.65	0.98	0.93	2.55	0.17
3.5~4.0	4.43	0.92	0.99	2.18	0.34

○ 내신 3등급대... 학생부종합전형·논술전형 합격률 ↑

<표1>은 내신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주로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부교과전형에 주목해보세요. 2~2.5등급 구간과 달리 2.5등급부터는 지원횟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3등급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등급이 내려갈수록 평균 지원횟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 성적을 단순히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라고 해도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같은 지원 패턴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고교 3년간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

을 발전시켜왔는지를 잘만 보여준다면 다소 낮은 내신 성적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있으므로 학업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2.0~4.0 등급 대에서 논술전형의 지원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내신 성적이 낮을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 성적에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없으므로 논술전형으로 눈을 돌려 상위권 대학 합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4등급 대 내신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은 다소 상향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급 대 내신 성적을 가진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한편, 상향·적정·안정권 대학을 고르게 배정해 원서를 작성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급대별로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입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세요.

〈표2〉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학생부교과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홍익대	10.1%	홍익대	7.9%
	2	국민대	6.6%	가천대(글로벌)	5.1%
	3	서강대	6.0%	송실대	5.1%
	4	명지대(서울)	5.9%	명지대(서울)	5.1%
	5	한국외대(글로벌)	3.5%	국민대	4.3%
	6	송실대	2.7%	광운대	4.1%
	7	가천대(글로벌)	2.7%	단국대(죽전)	3.6%
	8	가톨릭대(성심)	2.6%	인하대	3.0%
	9	광운대	2.5%	인천대	3.0%
	10	인천대	2.5%	덕성여대	3.0%
3.0~4.0	1	한성대	5.8%	강릉원주대(강릉)	5.7%
	2	상명대(서울)	3.5%	한성대	5.5%
	3	한국외대(글로벌)	3.1%	한림대	3.9%
	4	강원대(춘천)	3.1%	신한대	3.7%
	5	경기대(수원)	2.9%	계명대	3.4%
	6	신한대	2.8%	안양대(안양)	3.2%
	7	강남대	2.5%	강원대(춘천)	3.0%
	8	명지대(서울)	2.5%	순천향대	2.9%
	9	충북대	2.4%	경기대(수원)	2.7%
	10	강릉원주대(강릉)	2.4%	영남대	2.3%

※ 서강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미 실시

2~4등급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주요 대학은 홍익대, 국민대, 송실대, 광운대 등이군요. 홍익대는 지원율과 합격률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네요. 아마 이 등급대로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은 홍익대가 마지노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2.0~4.0 등급의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곧바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표3〉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경희대	10.9%	경희대	15.5%
	2	중앙대	8.6%	중앙대	13.3%
	3	이화여대	5.3%	아주대	7.4%
	4	서울여대	4.0%	서울여대	6.7%
	5	건국대	4.0%	성신여대	4.7%
	6	숙명여대	4.0%	이화여대	4.6%
	7	성균관대	3.6%	서울시립대	4.3%
	8	서울대	3.4%	송실대	3.5%
	9	한양대	3.3%	성균관대	3.5%
	10	아주대	3.3%	한양대	3.1%
3.0~4.0	1	서울여대	9.7%	중앙대	9.3%
	2	가천대(글로벌)	4.4%	서울여대	8.7%
	3	동덕여대	3.9%	강원대(춘천)	6.3%
	4	중앙대	3.3%	경희대	4.8%
	5	상명대(서울)	3.2%	한림대	4.0%
	6	강원대(춘천)	3.1%	이화여대	3.7%
	7	성신여대	2.8%	가천대(글로벌)	3.7%
	8	가톨릭대(성심)	2.8%	성균관대	2.6%
	9	한양대	2.7%	상명대(서울)	2.6%
	10	세종대	2.7%	아주대	2.4%

앞서봤던 <표2>에 등장한 대학보다는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등급의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들 대학에 합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희대, 중앙대 등의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힘들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합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등급 내신 성적 보유한 학생도 성균관대, 중앙대 논술전형 지원

앞에서 2~4등급대 지원자들의 논술전형 평균 지원횟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4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논술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표4〉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문계열 논술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성균관대	13.2%	성균관대	14.1%
	2	중앙대	10.6%	경희대	11.8%
	3	고려대	9.4%	중앙대	9.8%
	4	경희대	8.5%	고려대	9.6%
	5	연세대	6.9%	이화여대	7.8%
	6	이화여대	6.6%	서울시립대	6.3%
	7	한국외대	6.3%	서강대	4.5%
	8	서강대	5.4%	동국대	3.8%
	9	서울시립대	5.2%	송실대	3.8%
	10	동국대	4.4%	한국외대	3.6%
3.0~4.0	1	성균관대	8.4%	덕성여대	6.7%
	2	중앙대	8.2%	고려대	6.1%
	3	경희대	6.2%	중앙대	6.1%
	4	한국외대	6.0%	성균관대	5.8%
	5	동국대	5.9%	이화여대	5.3%
	6	고려대	4.8%	세종대	5.0%
	7	세종대	4.3%	인하대	4.4%
	8	건국대	4.1%	아주대	4.1%
	9	송실대	4.1%	건국대	4.1%
	10	숙명여대	4.1%	동국대	3.8%

※ 고려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미 실시

앞서봤던 <표3>에 등장한 대학보다 더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2.0~3.0 내신급간에 있는 학생들 중 일부가 연세대에 지원하고 있네요. 합격률을 살펴보면,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비율도 10% 전후로 꽤 높은 편입니다(고려대도 합격률이 꽤 높은 편이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논술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대학 수시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낮은 비중이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요. 하지만 외형상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40% 반영하더라도 실질 반영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논술전형에서는 논술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2~4등급대 학생들도 논술전형을 통해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case 14'에서 다른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자료 분석을 토대로 3.0 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진 일반고 국어국문학과 지망 수험생의 최적의 수시모집 원서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5> 인문계열 중상위권 수험생의 원서 조합 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명칭	모집단위	전형일정
1	서강대	논술	논술	국어국문학과	논술: 11월 19일(일)
2	한양대	종합	학생부종합	국어국문학	-
3	중앙대	종합	다빈치형인재	국어국문학과	면접: 12월 10일(일)
4	경희대	종합	네오르네상스	국어국문학과	면접: 12월 3일(일)
5	건국대	종합	KU자기추천	국어국문학과	면접: 11월 5일(일)
6	숙명여대	종합	숙명미래리더	한국어문학부	면접: 11월 4일(토)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면, 논술전형으로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논술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논술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 지원의 무게추는 논술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두는 편이 좋겠지요. 앞서 내신 2~4등급 구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합격률이 비교적 높았던 대학 중 중앙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다빈치형인재전형과 탐구형인재전형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대학 측 설명에 따르면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는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고 탐구형인재전형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탐구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지요. 이에 따라 다빈치형인재전형은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을 50%, 자기주도성/창의성, 공동체 의식, 성실성을 50% 반영해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탐구형인재전형은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을 80%, 자기주도성/창의성, 공동체 의식, 성실성을 20% 반영하지요.

지적인 성취보다 다양한 활동 이력이 자신의 강점이라면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이 강조되는 탐구형인재전형보다는 다빈치형인재전형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빈치형인재전형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반면, 탐구형인재전형에서는 과학중점학교나 특목고·자사고 학생이 다수

합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의 지원 대학 중 건국대와 숙명여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치릅니다. 수시원서를 접수하기 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상 건국대와 숙명여대보다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는 대학에 정시모집으로도 진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능 전에 면접이 실시되는 건국대와 숙명여대 이외의 다른 대학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2018 수시 마무리전략, 케이스별로 확인하자 ⑧】



[이런 수험생 주목!]

- ① 내신 3등급 내외의 일반고 자연계열 수험생
- ② 각종 교내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수험생
- ③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로와 직결되지 않는 수험생

[수험생 질문]

Q. 일반고 고3 이과생입니다. 내신 평균 등급은 3.1등급 정도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에요. 대신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 학과는 산업공학과입니다. 고1때부터 수학, 영어 등 교과 부장과 반장을 맡아 선생님들이 학생부 세부능력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반영해주셨어요. 매 학기 책도 10권 이상 읽으면서 1, 2학년 때 모두 교내 독후감 경시대회에서 수상했고, 그 밖에 과학 경시대회나 소논문 발표대회, 동아리 발표회 등으로 수상 경력도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연계열이지만 교지편집 동아리를 했고, 과학실험연구 동아리에서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학과 탐방과 진로 멘토링에 참여한 것을 바탕으로 고3때는 진로탐색 보고서를 쓰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량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막상 수시 원서를 쓰려니 제가 희망하는 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별로 없어 걱정돼요.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입시대장의 답변]

A. 고교 3년을 알차게 보내온 학생이군요. 내신 성적이 3.1등급이면 수시에 도전해볼만 합니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들이 학과와 연관성이 떨어져 고민이군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모든 비교과 활동이 진로와 연관되어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이 전공적합성을 중

심으로 학생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전공적합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임은 맞지만 학생처럼 학교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실성과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만한 요소이고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먼저 학생과 비슷한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떤 수시 전형에 많이 지원하는지 살펴볼까요?

〈표1〉 내신 등급대별 수시지원 횟수 분석(자연계열 중상위권)

내신급간	평균지원횟수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적성
2.0~2.3	4.80	1.71	0.82	2.24	0.00
2.3~2.5	5.09	1.39	0.89	2.75	0.03
2.5~3.0	4.90	1.11	1.05	2.69	0.05
3.0~3.5	4.87	0.97	1.06	2.71	0.13
3.5~4.0	4.59	0.77	1.06	2.44	0.31

내신 평균등급이 2~4등급인 학생들은 보통 4, 5장의 수시 원서를 씁니다. 2~3등급대 학생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에 더 많이 지원한 반면 3등급을 넘어가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신 평균이 3등급을 넘어도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맛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내신 평균이 2등급을 넘어가게 되면 서울 중위권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합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요.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내신 평균이 2~4등급인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문은 논술전형입니다. 평균 4~5장의 수시 원서를 쓰는데 그 중 2장 이상의 원서를 논술전형에 쓰지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전형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을 따져보겠습니다.

○ 학생부교과는 ‘안정지원’ 카드로

가장 먼저 학생부교과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2〉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학생부교과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국민대	7.0	국민대	7.2
	2	홍익대	6.2	인천대	6.8
	3	서강대	5.7	명지대(용인)	5.0
	4	인천대	5.6	광운대	3.9
	5	광운대	3.8	충남대	3.7
	6	세종대	3.4	홍익대	3.3
	7	송실대	3.2	송실대	3.3
	8	명지대(용인)	3.1	단국대(죽전)	2.9
	9	건국대	3.0	세종대	2.9
	10	충남대	2.6	가천대(글로벌)	2.9
3.0~4.0	1	명지대(용인)	3.9	강원대(춘천)	3.6
	2	한국산업기술대	3.3	명지대(용인)	2.9
	3	강원대(춘천)	3.2	가천대(글로벌)	2.9
	4	상명대(서울)	3.1	순천향대	2.7
	5	인천대	3.1	강릉원주대(강릉)	2.7
	6	국민대	2.9	경동대(문막)	2.7
	7	충북대	2.5	한국교통대(충주)	2.6
	8	한성대	2.3	한경대	2.3
	9	전남대(광주)	2.2	부경대	2.3
	10	단국대(천안)	2.2	한국산업기술대	2.2

※ 서강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미 실시

내신평균 2~3등급 구간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도 합격률이 비교적 높은 서울권 대학은 국민대, 광운대, 홍익대, 송실대, 세종대가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인 인천대와 충남대에도 많이 지원해 꽤 합격하는군요.

하지만 내신평균이 3등급이 넘어가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내신 평균 3~4등급 구간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많이 합격한 상위 10개 대학에 서울권 대학이 없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도 명지대(용인), 가천대(글로벌)가 전부입니다.

만약 학생처럼 내신 평균 3등급대인 학생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지원 대학을 다소 낮춰야합니다.

○ 교과전형보다 내신 합격선 낮은 ‘학종’ 적극 활용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좀 다를까요?

〈표3〉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내신급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중앙대	7.6	아주대	13.9
	2	아주대	7.4	경희대	12.0
	3	경희대	7.1	이화여대	11.1
	4	이화여대	6.5	중앙대	9.5
	5	서울대	6.3	서울시립대	7.5
	6	한양대	6.0	한양대	3.4
	7	서울시립대	5.3	서울대	3.4
	8	건국대	4.6	성균관대	3.0
	9	인하대	4.0	서울과학기술대	2.9
	10	고려대	3.7	중앙대(안성)	2.6
3.0~4.0	1	서울여대	6.0	아주대	9.5
	2	세종대	4.9	서울여대	6.6
	3	아주대	3.9	중앙대(안성)	5.3
	4	한양대	3.9	중앙대	4.8
	5	송실대	3.3	이화여대	3.2
	6	건국대	3.3	광운대	3.2
	7	국민대	3.1	서울과학기술대	3.2
	8	서울과학기술대	2.9	명지대(용인)	2.9
	9	중앙대	2.8	경기대(수원)	2.9
	10	가천대(글로벌)	2.8	서울시립대	2.7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내신 평균 2~3등급뿐 아니라 3~4등급의 학생들 상당수가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고 있네요. <표1>에서 살펴봤듯 내신평균 3~4등급대의 학생들은 보통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더 많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학생처럼 비교과 실적이 풍부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도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용해야 서울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중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4>는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수원) △단국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에리카) △항공대 등 수도권 소재 주요 10개 대학의 전형별 지원율과 합격률을 자연계열의 경우에 한해 정리한 것입니다.

〈표4〉 등급별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 수시지원 성향(자연계열)

내신등급	지원자					합격자				
	종합	교과	논술	실기	적성	종합	교과	논술	실기	적성
2~3	41.5%	35.8%	19.7%	0%	3.0%	47.4%	42.1%	9.3%	0%	1.2%
3~4	27.4%	15.7%	43.5%	0.1%	13.4%	29.5%	15.9%	33.5%	0.6%	20.5%

내신평균 3~4등급 구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율과 합격률이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원율, 합격률보다 높습니다. 차이는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표3>에서도 등장한 아주대의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볼까요? 아주대는 내신 평균 2~3등급 구간과 3~4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합격한 대학입니다. <표5>는 2017학년도 아주대 합격자들의 전형별 내신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것입니다.

〈표5〉 아주대 합격자들의 전형별 내신 평균 성적

*종로학원생 대상 합격자 표본조사 결과

전형유형	전형 명칭	내신 평균	2018학년도 기준 전형 명칭
학생부종합전형	아주ACE(일반)	2.8	학생부종합전형(ACE)
	과학우수인재	3.4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우수자	2.4	학교생활우수자

2018학년도 전형 명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학생부종합전형(ACE)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2.8등급, 학생부종합전형(자기추천)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3.4등급입니다. 이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2.4등급입니다. 꽤 차이가 나지요? 비교과 활동을 어느 정도 해 왔다면 무리하게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논술전형으로 대학 점프!

만약 내신 평균등급이 2~4등급이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가장 적합한 전형은 논술전형입니다. 내신 평균 2~4등급인 학생들이 논술전형으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 대학은 어디인지 <표3>과 비교해 볼까요?

〈표6〉 등급대별 지원율 및 합격률이 높은 대학(자연계열 논술전형)

내신구간	순위	지원율		합격률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3.0	1	교려대	14.4	성균관대	13.2
	2	성균관대	13.7	교려대	12.2
	3	중앙대	10.4	중앙대	10.0
	4	연세대	9.0	건국대	6.2
	5	경희대	6.2	연세대	5.9
	6	한양대	6.0	한양대	5.7
	7	서강대	5.9	서울시립대	5.7
	8	이화여대	5.3	이화여대	5.4
	9	인하대	4.6	경희대	5.1
	10	서울시립대	4.1	서강대	4.3
3.0~4.0	1	성균관대	9.4	세종대	8.4
	2	중앙대	9.2	인하대	7.9
	3	교려대	7.7	아주대	6.1
	4	인하대	7.0	건국대	6.1
	5	한양대	5.9	한양대(에리카)	5.7
	6	건국대	5.9	중앙대	5.0
	7	아주대	4.6	경희대	4.8
	8	광운대	4.6	성균관대	4.8
	9	서강대	4.5	연세대	4.5
	10	연세대	4.2	덕성여대	4.5

※ 고려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미 실시

<표3>에서 내신 평균 2~3등급인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한 상위 10개 대학 중 연세대와 서강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6>을 보면 학생들이 논술전형으로 많이 합격한 상위 10개 대학에서 이들 두 대학의 이름을 찾을 수 있지요. 내신 평균 3~4등급에서는 10% 이상이 논술전형으로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신 구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한 상위 10개 대학 중에서는 찾을 수 없던 이름들이지요.

따라서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있다면 논술전형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도 병행해야겠지요.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수시 원서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7〉 자연계열 중상위권 수험생의 원서 조합 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명칭	모집단위	전형일정
1	송실대	교과	학생부우수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2	건국대	종합	KU자기추천	산업공학과	면접: 11월 4일(토)
3	아주대	종합	아주ACE(일반)	산업공학과	면접: 11월 25일(토)
4	인하대	종합	인하미래인재	산업경영공학과	면접: 11월 19일(일)
5	숙명여대	종합	숙명과학리더	기초공학부	면접: 11월 5일(일)
6	경희대	논술	논술우수자	산업경영공학과	논술: 11월 18일(토)

**상위권만 학생부 기록해주는 학교,
학부모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



▲ 지난해, 9월 26일 과산,중평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정책 연수 때 모습이다. [사진 출처=충북교육청]

“일반고 5,6등급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다른 학부모의 친구를 통해 가끔 들려오는 이런 소식. 마치 내 아이도 이 방법을 따라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그 방법을 궁금해 하지만, “그 아이는 뭔가 특별했나보지”라며 체념하기 일쑤다.

한편 상위권 대학의 입학팀장들은 “중하위권에도 우수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기록이 있는 학생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고교에서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학생부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학교 측도 억울하다. 아무리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하위권 학생들이 소극적이라 기록할게 없다고 한다. 그만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적위주의 사고가 학생부를 관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존재한다.

학생들 역시 변명거리가 존재한다.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도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학교 취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두에게 불만이 있으며, 모두에게 복잡하며,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심지어는 선발하는 대학조차 고달프게 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오지선다형 찍기 성적으로 선발하면 모두가 편할 텐데도 굳이 모두에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부종합전형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이다.

최근 상위권 대학은 물론이고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다. 이에 모든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심지어 상위권 학생들의 기록만 챙기는 학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시각으로 인해 공평하고 관리도 편한 오지선다형 찍기 시험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평가 방식’이 아니라 그 평가로 말미암은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격변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일부 과거에 찍기 시험으로 성장한 기성세대도 창의력은 충분히 발현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찍기 시험에도 충분히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사람들이 나타나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혹은 일찍부터 창의교육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한국을 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학벌에 파묻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굳이 조기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정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국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도 존재한다. 이런 사례는 서울대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 사회의 ‘끼리끼리 문화’에 질려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를 통해 아이들이 주역이 될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선 상위권만 챙기는 지금의 교육 현장, 괜찮은 것인가? 계속해서 내 자식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을 혁신해야만 한다. 한국의 미래가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유지돼야 지금의 학부모 세대들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 없이 생활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의 아

이를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학교의 변화는 학부모에서 시작 된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에 가장 발 벗고 나서야 할 집단은 교사여야 하며 그들 모두가 등급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학교는 안 된다”며 그림에 떡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학교 현장’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 자신이 다녔던 시대의 ‘학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학교의 변화는 학부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힘은 학부모에게도 있다. 우리사회가 민주화가 될수록 학교도 민주화가 됐다. 학부모도 학교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있다. 학부모는 학운위를 통해 내 아이가 생활하는 학교를 심사하고, 토의한다. 즉, 학교가 잘못하면 학부모가 내 아이를 교육하듯 학교를 혼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운위란 말은 들어봤지, 실제로 어떤 권한과 권리가 부여됐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실제로 대다수 학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학부모가 학교 주체로서 활동권리를 보장받는 여러 위원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는 이런 권한을 애써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부모가 모르면 좋은 것도 있고 알면 귀찮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기도 하다. 결국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학부모는 학교주체로서 가진 권리와 권한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아이는 졸업한다. 모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다.

학교의 결정, 누가 내리는 것일까? 혹자는 모든 학교의 결정은 교장이 내린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교장은 ‘학교 짱’이니 교장이 결정을 내린다고 반문한다. 하지만 교장은 학교 물품을 임의대로 구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학교에 어떤 물품을 사는지 결정하는 ‘물품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권한조차 없다. 물론 일부는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 나눠서 구매해 5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을 받은 뒤, 심의를 비켜가는 경우도 있다. 어찌됐건 교장은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심의는 학운위에서 한다.

학부모, 가만히 있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로 목소리를 높여라!

학교의 교육과정도 학운위에서 최종 심의한다. 과목별 수업 몇 시간을 편성할 것인지, 체육대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학교 내 거의 사항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학운위이다. 하지만 학교운영 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면, 이 역할을 학교 교장이 다 하게 된다.

학운위를 포함한 학교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33개로, 학교

별로 기타 위원회 3~4개를 만든다면 학교에 총 40여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어느 학교이든 다 있는 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 교칙개정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교사나 교장이 잘 모르다보니 학부모도 모르게 돼 일반적으로 다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 가운데,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때 앞에서 말한 학생부 부실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에게 직접 말했다간 우리 아이가 화를 당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부실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한다. 학운위를 움직여라.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안건 번호 1 </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발의년월일 : 2017. 8. 00.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홍길동 </div>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내용	
4. 참고사항	

제목: 00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심의(안)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들의 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만들어 학운위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위 사진은 학교의 학운위 안건발의서 양식이다. 학운위의 안건발의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실에 학운위에 올릴 안건상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에 갈 시간이 없다면 행정실 담당자에게 구두로 의사표시 하고 안건을 요청하면 행정실 담당자가 대신 안건을 작성하게 된다.

안건에 대한 회의는 10일 이내에 개최하게 된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학운위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뒤, 안건에 상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위원과 교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안건에 대한 상의를 하고 올린다면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의 학교는 교장이 바꾸고 싶어도 교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학운위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교장이 일하기

가 훨씬 수월하다.

사실 학운위의 결정은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 교장이 판단했을 때 어떤 안건이 학교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육청에 거부사유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고할 때 교장은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심의한 안건을 교장이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학운위가 더 강력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서 의결하면 된다. 또 하나는 일부 교사들이 위 안건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교장에게 요청하는 결정을 심의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충분히 의식있게 대처해간다면 확실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이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문제이므로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학운위 위원들은 학부모회와 함께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내 다양한 활동은 학부모회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또한 학부모회도 학교의 불편함 점을 바꾸고 싶다면 학운위원들과 협의해 안건으로 올리고 통과시키면 된다.

학교는 절차대로 움직이는 공무원 사회이고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다.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을 알아야 하고 공동체 책임감을 가져야 학교가 달라진다.

내 아이의 기록부, 학부모가 모르면 기록부는 그대로다. 학부모가 알면, 학교는 변한다.

'졸속이 만든 딜레마' 수능 절대평가..
'사교육 학업부담 미래대비 모두 실패'

모두가 비난하는 개편안.. '절대평가 프레임 씌운 정권 책임'

10일 발표된 2021수능 개편안이 '졸속'이란 평가 아래 교육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며 딜레마에 빠졌다. 새로운 과목의 등장으로 사교육 부담은 더욱 늘고, 신설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사실상 개별 과목인 탓에 학업부담은 오히려 증대되며, 수학 문/이과 구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수능이 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반응은 절대평가를 지지해온 시민단체나 절대평가를 반대해온 전문가, 나아가 고교현장까지도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사교육업체만 희색이 만연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수능 개편의 배경이었던 ▲사교육 부담 감소 ▲학생들의 학업부담 감소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등 3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장 평가이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편의 수용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새정부가 역지로 덧씌운 절대평가의 프레임 탓에 시한에 쫓기는 졸속 진행이 불가피했고 애

초 개편의 이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편 명분조차 완전히 잃은 탓에 이번 수능 개편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미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영어 한국사마저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능 개편안이 최초 논의된 것은 2013년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었다. 문/이과 융합을 위해 수학까지 전부 계열 구분을 두지 않는 형태가 3안으로 당시 제안됐다. 하지만, 이번 수능 개편안은 이조차도 이루지 못했다. 갑작스런 대선 등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개편안이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등 본래 취지를 잃은 상황에서 굳이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할 이유는 없는 상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 절대평가 확대를 밀어붙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아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단 현 수능체제를 2021학년까지 유지한 후 2022학년 수능에서 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수능 개편체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교육체제가 바뀔 때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사교육업체들이다. 이대로라면 2021 수능은 사교육부담에 학습부담까지 늘리는 데다 4차산업혁명 대비도 못하는 최악의 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이렇거든 수능-정시가 대입에서 갖는 ‘패자부활전’ 등의 역할을 인정하고 완전한 상대평가로 회귀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교육/학습부담 감소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서도 어긋난 2021 수능 개편안이 각계각층으로부터 '졸속'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수능 개편의 명분조차 잃었기에 폐기돼야 할 정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 베리타스알파DB

<‘절대평가 확대’ 2021 수능 개편안.. 사실상 1안 확정?>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춰 통합사회/통합과학의 1개 과목 추가를 제외하면 현행 수능과 비교했을 때 절대평가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가

논의의 초점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사 절대평가와 올해 첫발을 뗀 영어 절대평가까지 2과목 절대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2외국어/한문과 통합사회/통합과학까지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 국어 수학 탐구까지 전부 포함해 7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 중 하나로 가닥은 잡혔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현행 수능에 비해 절대평가 시행 범위는 늘어나게 된다.

현재 공청회 일정이 남은 상태지만, 현장에선 이미 4과목 절대평가의 1안으로 교육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평가가 우세하다. 개편안 발표 일주일 전인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과 집값은 국민들이 가장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교육은 현장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결국 전면 절대평가라던 최초 공약과는 달리 일부 절대평가 확대방안이 1안으로 제시된 때문이다.

11일 치러진 1차 공청회의 패널 구성부터 교육부가 1안 적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는 발제자로 연세대 교육학부 이규민 교수가 나섰고,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전 입학처장), 도봉고 송현섭 교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모임 김선희 회장,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이찬승 대표까지 4명이 토론자였다. 이 중 이 교수와 안 교수, 김 회장은 올해 4월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가 주관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에 참가해 전 영역 절대평가는 시기상조라며 목소리를 모은 이력이 있다. 송 교감도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연구사로 지내는 등 교육현장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변별력 없는 수능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점에서 전 영역 절대평가에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결국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1안 지지가 이미 예상돼있던 패널 구성이었다고 봐야 한다. 첫 공청회가 가진 파급력을 생각할 때 교육부가 1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 아닌 추측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실질적 1안 지지는 새 정부의 최초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단 문구를 공약집에 포함시키며 강경한 수능 절대평가 ‘밀어붙이기’를 연상시켰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돼 유례없는 1박2일 청문회가 펼쳐진 김 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수능절대평가를 위시한 교육공약 밀어붙이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단 평가였다. 하지만, 정작 수능 개편안은 일부 절대평가인 1안을 내놓으며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절대평가 이후 혼란상을 고려해 전면 절대평가를 정부가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란 관측은 이미 교육계에선 만연했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면 절대평가는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수 차례 얘기해왔다. 아직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던 ‘이해찬 세대’를 기억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질 때면

새 정부의 임기도 반환점을 한참 지나친 상태다. 2002학년 이해찬 1세대와 같은 일이 다시금 벌어진다면 다음 대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면 절대평가 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1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반년 넘게 수능 절대평가를 두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란상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론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 왜 문제인가.. 1, 2안 모두 명분 잃어>

- 사교육 부담 감소? 도리어 증가, 신종 사교육 우려마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모두 교육정책의 기본 배경은 ‘사교육 부담 감소’였다. 교과서 위의 교과서를 또 둔 유례없는 정책인 EBS 수능연계, 재정을 미끼로 대학의 대입자율권을 억누르는 교육정책 등 다소 비정상에 가까운 제도들도 전부 사교육 부담 감소란 명목 아래 정당화됐다. 한 때 만점자를 찾아보기 어렵던 수능이 ‘쉬운 수능’을 표방하게 된 것도 사교육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번 수능 개편안 역시 대외적인 명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지만, 사교육 부담 감소란 명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경쟁’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상대평가를 없애면 경쟁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배경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안은 사교육을 증가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더해 신종 사교육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안의 경우 국어 수학에서 사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우세하다. 탐구마저 1과목이 되면서 영역별 반영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2과목이 1과목이 되면 당연히 반영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 수능의 전례들을 되짚어볼 때 과목별 유/불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벌써부터 특정과목으로 수험생들이 몰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로또’ 입시는 수험생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장에서든 괴로운 일이다. 탐구 반영비율을 낮추고 국어 수학 반영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어 수학에 무게가 더 크게 실리면 사교육 시장은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수학의 경우 ‘수포자’란 말이 나올만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아무리 난도를 낮춘다 해도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의 비중 축소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 사교육 역시 커지게 된다. 국어 역시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에 따라 사교육 열기가 한층 타오르게 된다. 당장 올해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며 국어/수학으로 사교육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2안을 적용하는 경우엔 신종 사교육의 등장이 점쳐진다. 전 영역 절대평가로 인해 모든 영역의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국어/수학 사교육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대학들이 변별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전형요소 관련 사교육이 생길 개연성이 크다. 현재 대학들은 전면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정시를 사실상 폐지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정시 유지를 강제하려거든 새로운 전형요소 도입을 허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주로 거론되는 전형요소인 면접, 대학별고사 등이 도입되는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종사교육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1, 2안 어느 것을 택하든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존재로 사교육이 이득을 보리란 관측도 나온다. 한 사교육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경우 1학년 과정이기에 당장 내년부터 수업이 시작돼야 하지만 교과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교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기도 어려운 모습에 학생 학부모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사교육 업계에선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업부담 감소? 통합사회/통합과학 어쩌나

절대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학업부담 감소 역시 이번 개편안에선 이루지 못할 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신설이 학생들에게만 만만치 않을 부담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교육부는 탐구가 1과목 줄고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생겼기에 과목 수가 동일하며, 1학년 과정에 불과하기에 학업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 통합사회/통합과학은 2과목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한 고교 교사는 “교육부는 수능에서 1개 영역에 같이 묶여 있던 이유로 통합사회/과학이 1과목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학습량은 사회와 과학의 2과목으로 봐야 한다. 사회와 과학을 따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와 과학이 여러 과목으로 쪼개져 있던 점까지 고려하면 2과목 이상으로 볼 여지까지 있다”고 말했다.

1학년 수준이기에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어차피 고3이 돼서야 수능을 보게 되는 현대입 구조 상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3학년 때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아직 교과서조차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통합사회/과학은 2004학년까지 시행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사회/과학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문/자연계열 학생들은 배점은 다소 달랐지만 공통사회/공통과학을 수능에서 치러야만 했다. 여기에 더해 인문계열은 사회과목 중 1개, 자연계열은 과학과목 중 1개를 추가로 선택했다. 당시에도 공통과학이나 공통사회는 1학년 수준이었지만 부담이 적지 않았다. 공통과학의 경우 물/화/생/지, 공통사회의 경우 일반사회/윤리/한국지리/국사를 전부 공부해야 했던 때문이다. 이번 통합사회/통합과학 역시 내용상 여러 과목이 융합된 형태일 것이기에 학습 부담이 만만찮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로 학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

상도 있지만,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2외/한문의 경우 본래 인문계열 학생들만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기에 절대평가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없다. 또한, 탐구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면서 '제2외/한문 탐구영역 1과목 대체'제도는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 제2외/한문 응시 이유가 응시영역으로 강제하는 서울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간 제2외/한문에 응시해온 이유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그간 탐구 1과목 대체를 염두에 두고 제2외/한문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단 점에서 학업부담 감소 효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문/이과 구분 여전

절대평가 찬/반 여론 모두 1, 2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문/이과 융합이란 당초 취지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래 수능 개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현 중3부터 적용되기에 그에 발맞춰 수능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서 논의를 시작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표방하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개편안 1안과 2안이 수학 가형/나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취지는 사라졌단 평가를 받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이란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 48단위를 두고, 이후 일반선택/진로선택을 학생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앴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간호학과 경제학과 등 문/이과 경계에 서 있는 학과들에 두 계열의 교육과정을 고루 배운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의 차이만 있을 뿐 수학을 문/이과로 구분하고 있다. 고교 교육에서는 문/이과 융합을 외치면서 정작 수능은 문/이과를 구분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된 셈이다. 그간 절대평가를 지지해온 시민단체조차도 2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수능 개편이 졸속이란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부터 알 수 있다. 절대평가 도입이 기존 대입체제를 크게 흔들고 변별력을 없애는 방편이기에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부총리 인선도 크게 늦어졌다.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는 없었던 사안이다. 이런 때일수록 명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사교육/학업 부담이란 명목을 없애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의 장점들을 홍보하기 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부터 알리는 데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설득의 절차 없이 무조건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능개편 필요한가? 전 영역 상대평가 목소리마저>

산적한 문제점들로 인해 수능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주장도 나온다. 굳이 별다른 문제가 없던 수능을 뒤바꿔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사교육 관계자는 "솔직히 사교육 입장에서선 어느 안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입시체제를 뒤흔드는 경우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대응 태세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부터 탐구 1과목 축소까지 이번 변화들은 사교육에겐 호재"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대입구조를 고려할 때 수능과 정시의 장점을 인정하고, 전 영역 상대평가로 회귀해야 한단 의견도 있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시의 기본 전제는 '경쟁'이다. 같은 과목, 같은 문제를 두고 누가 더 노력을 기울여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현 세대가 인정하는 '공정성'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사까지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이란 명목 아래 절대평가 도입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영어 절대평가까지 도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줄세우기'가 미래 교육과 맞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쌓인 후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고교 교육과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미 본래 취지를 잃은 이상 절대평가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할 정책에 불과하다"며, "본래 절대평가는 학업부담을 일정부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점수구간대가 1점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90점 이상이 담보돼있는 최상위권은 더 이상 학업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경쟁 역시 완화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등급 기준선 밑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더욱 학업부담을 느끼리란 반론도 있으며, 성취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89점과 90점을 등급으로 가르는 것이 부당한단 의견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공교육 내에서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수시 학종, 학생부교과 등이 있다. 수능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평가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대호 기자

베리타스알파 2017년08월16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

2018 수능(현행)		절대평가	
		① 안(4과목 절대평가)	② 안(전과목 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	국어
2 수학 (가/나형 중 택1)		2 수학 (가/나형 중 택1)	수학 (가/나형 중 택1)
3 영어		3 영어	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	한국사
-		5 통합사회·통합과학	통합사회·통합과학
5 탐구 사회탐구 (택1) (9과목 중 최대 택2)	→	6 탐구 사회탐구 (택1) (9과목 중 택1)	탐구 사회탐구 (택1) (9과목 중 택1)
6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택2)		과학탐구 (4과목 중 택1)	과학탐구 (4과목 중 택1)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택2)		직업탐구 (단일 과목)	직업탐구 (단일 과목)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수능 개편안 시안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① 안	-수능 변화 최소화 → 안정성, 예측 가능성 유지
-수능 변별력 유지	-상대평가 과목(국어·수학 등) 학습 편중 우려
-학생부 취약 학생, 재수생의 불이익 작음	-향후 ②안으로 추가 개편 시 대입전형 혼란 우려
② 안	-학생 희망·진로별 학습에 집중 가능
-수능 영향력 축소 → 학생참여수업, 과정 중심평가 활성화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별 시험 확대 우려
-상대평가 과목 풀림 현상 없어	-내신 과열 경쟁, 학생부 공정성 문제 제기 가능
	-학생부 취약 학생, 재수생 불이익 큼